

보건·복지

취약지 응급의료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보건복지부

농지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고령자 맞춤형 공동시설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교육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교육부

농어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김제토요학교) 김제시 / 김제교육지원청

정주생활기반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사업 미래창조과학부

LPG 소형저장 탱크 보급 산업통상자원부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경제활동·일자리

농어촌 체험 마을 및 관광 해양수산부

충남형 6차산업화 두레기업 육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충청남도

SMART 두레 고용노동부 / 경상북도

문화·여가

작은 영화관 건립 문화체육관광부

환경·경관

주민주도형 도랑 살리기 환경부 / 충청남도

국가농업유산 지정 및 유산자원 활용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안전

농업정책보험 농림축산식품부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080-01

행복한 농어촌 따뜻한 정책을 말하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행복한 농어촌 따뜻한 정책을 말하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농림축산식품부
국민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국민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정책연구센터



농림축산식품부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정책연구센터

6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이

관련 부처·지자체에는

삶의 질 향상계획의

방향과 과제를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점검·분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농어촌 주민과 국민에게는

우리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농어촌

따뜻한 정책을 말하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발 간 사

생명산업인 동시에 국민들의 일터·삶터·쉼터로서의 농어업·농어촌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는 '04년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부처 차원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간 제1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05~'09)과 제2차 기본계획('10~'14)을 수립하여 총 57조원을 투·융자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생활 만족도 제고, 상하수도·가스·광대역 보급망 등 기초인프라 보급률 향상, 귀농·귀촌 증가 등 일정부분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도농간 생활여건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농어업·농어촌은 여전히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이러한 1, 2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18개 부처·청이 참여한 '삶의 질 향상 기획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삶의 질 향상 포럼' 논의를 거쳐 제3차 기본계획('15~'19)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농어업·농어촌의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등 7대 분야에 걸쳐 향후 5년간 46조5천억원의 투융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질 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5개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농어촌 주민 3,200여명으로 구성된 정책모니터링단도 출범한 바 있습니다. 금번 우수사례집 발간 또한 그간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모니터링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현장 체감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아무쪼록, 이 우수사례집이 관련 부처·지자체에는 삶의 질 향상계획의 방향과 과제를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점검·분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농어촌 주민과 국민에게는 우리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방화와 고령화란 위기 앞에서 삶의 질 향상계획 및 위원회와 같이 범부처가 합심하여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다보면 희망찬 농어업·활기찬 농어촌이라는 비전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동 필

목 차

I 보건·복지

- | | |
|--------------------------------|-----|
| 1. 취약지 응급의료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보건복지부 | 010 |
| 2. 농지연금 농림축산식품부 | 018 |
| 3. 농촌 고령자 맞춤형 공동시설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 026 |

II 교육

- | | |
|---|-----|
| 4.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교육부 | 036 |
| 5. 농어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김제토요학교) 김제시 / 김제교육지원청 | 044 |

III 정주생활기반

- | | |
|------------------------------------|-----|
| 6.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사업 미래창조과학부 | 054 |
| 7. LPG 소형저장 탱크 보급 산업통상자원부 | 062 |
| 8.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070 |

IV 경제활동·일자리

- | | |
|--|-----|
| 9. 농어촌 체험 마을 및 관광 해양수산부 | 080 |
| 10. 충남형 6차산업화 두레기업 육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충청남도 | 088 |
| 11. SMART 두레 고용노동부 / 경상북도 | 096 |

V 문화·여가

- | | |
|-----------------------|-----|
| 12. 작은 영화관 건립 문화체육관광부 | 106 |
|-----------------------|-----|

VI 환경·경관

- | | |
|--------------------------------------|-----|
| 13. 주민주도형 도랑 살리기 환경부 / 충청남도 | 116 |
| 14. 국가농업유산 지정 및 유산자원 활용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 124 |

VII 안전

- | | |
|--------------------|-----|
| 15. 농업정책보험 농림축산식품부 | 134 |
|--------------------|-----|



I

보건·복지

1

취약지 응급의료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 보건복지부

2

농지연금

– 농림축산식품부

3

농촌 고령자 맞춤형 공동시설
조성

–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 기술이 도서민의 생명을 살리다’

농어촌 취약지의 응급의료 인프라는 대도시와 비교할 때 질적 수준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 북한의 웅진군에서 고작 10km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 최서 북단의 섬 ‘백령도’도 응급의료 기반이 많이 열악한 곳 중 한 곳이다. 다행히도 최근 백령도에 응급의료 원격협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대도시 거점병원과의 협진이 가능해졌다. 이는 곧 도서지역 응급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일이니 앞으로의 활용도에 더욱 관심이 간다.



수혜자
개인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시스템 구축
2015년



지원내용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거주 인원 만 명, 그러나 응급실은 단 한 곳뿐인 백령도

군인 반, 여행객 반으로 평일 새벽부터 북적북적대던 인천 연안 여객선터미널. 이곳에서 500명 이상도 거뜬히 수용할 수 있을 법한 아주 큰 규모의 쾌속선을 타고 서해의 망망대해를 4시간 여 달리자 면적이 제법 되어 보이는 큰 섬 하나가 나타났다. 이곳은 바로 대한민국 최서 북단의 섬으로, 북한 옹진군에서 고작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섬인 ‘백령도’다.

백령도는 인근의 면적이 비교적 작은 섬인 대청도, 소청도와 함께 서해분계상의 중요한 군사지역이며, 해병대 수와 주민의 인구가 거의 1:1을 이루고 있는 거주 인원이 만 명이 약간 넘는 꽤 큰 규모의 섬이다.

그러나 백령병원의 이승열 사무장에 따르면, 백령도는 응급실을 갖춘 병원이 백령병원 딱 한 곳이고,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CT 촬영 장비가 없어, 인근 해병대 부대인 흑룡의원 의무중대에 가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한 응급실에 전문의가 없어, CT를 찍어와도 판독이 어려워서 무조건 대도시로 이송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응급의료 원격협진’이 있어 당황하지 않고 진료 끝

2015년 4월 백령병원 응급실에 원격협진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화상 카메라와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이 시스템은 백령병원의 거점병원인 인천 길병원에도 동일하게 구축이 되었고, 이는 곧 응급환자를 협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원격협진 시스템을 통해 백령병원은 환자의 상태, 진료기록, 검사 결과 등을 효과적으로 인천 길병원으로 전달하고 자문을 받을 수

1
대한민국 최서북단의 섬 '백령도'로 향하는 배에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다.



“원격협진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로는 당황하지 않고, 거점병원과의 협진을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있게 되었다.

업무 차 육지에 나가 있는 백령병원의 이상곤 전문의와 통화를 해보았다. 그는 이번 응급의료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으로 응급 환자 진료가 한결 편리해졌다고 밝은 톤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선,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닌 다른 과(科)의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원격협진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소견을 묻기가 편리해져서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다음으로는 본인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원격협진의 두 번째 장점을 들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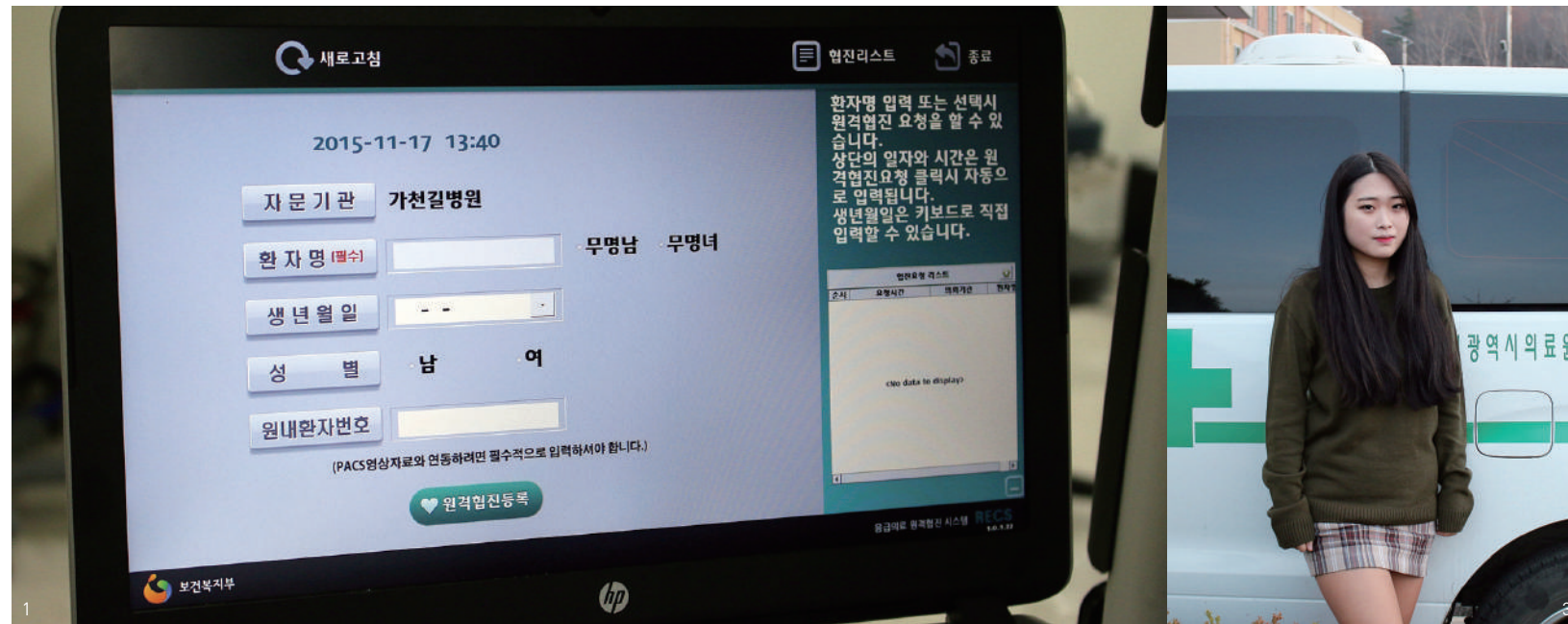
“섬 특성상 물에 빠진 응급 환자들이 많아요. 전 이런 환자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부류의 응급 환자가 오면 당황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원격협진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로는 당황하지 않고 거점병원과의 협진을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급의료 원격협진’으로 맹장염 진단 받은 임미현 양

2
2015년 4월 백령병원에 원격협진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3
백령병원은 백령도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갖추고 있다.

2015년 6월, 백령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임미현 양(17)은 학교에서 갑작스런 복통에 친구들과 함께 백령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고 한다. 링거 투여 후 항생제를 받아 퇴원했는데, 다음 날 교회에서 통증이 계속되어 구급차를 타고 백령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다고 한다.



1
원격협진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상태,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을 전달하고 자문을 받는다.

2
백령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백령도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녀의 담당 의사였던 이상곤 전문의는 처음 임미현 양이 병원에 왔을 때 맹장염이 워낙 초기 단계여서 거점병원인 길병원의 전문의와 원격협진으로 CT 결과를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맹장염으로 확진을 내릴 수는 없었다고 한다.

다행히도 두 번째 그녀가 내원했을 때에는 원격협진으로 길병원과 CT 결과를 공유해서 맹장염 의심 확진을 내렸고, 이에 임미현 양은 바로 다음 날 배를 타고 인천 시내의 전문 병원에서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정작 임미현 양 본인은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원격협진으로 진단을 내렸던 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설명을 듣고서는 “이제라도 그런 협진 시스템이 생겨서 다행이네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자신이나 친구들이 수업이 끝나고 병원을 찾으면 담당 전문의가 없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담당 과목 선생님이 아니어서 그런지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아 많이 불편했었다면서 이번 원격 협진 시스템이 생겨서 참 잘됐다고

웃으며 말했다.

‘응급의료 원격협진’ 이젠 전국적으로 확대할 때

백령도와 같은 도서지역이나,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은 다양한 응급 환자에 대비한 전문의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살릴 수 있는 환자임에도, 취약지에 거주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그동안 일어나고 있었다.

이번 백령도의 응급의료 원격협진 사례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취약지 응급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정 조치를 함으로써 생존율을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서 널리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갈수록 발달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례를 보면서 향후 개발될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 미래 농어촌의 삶에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될지 더욱더 기대된다.

3
2015년 6월 원격협진으로 무사히 맹장염 수술을 받은 임미현 양

시행 후 변화



진료기록 상호 공유 시스템 구축

* 대도시 7개 거점병원,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42개



응급의료서비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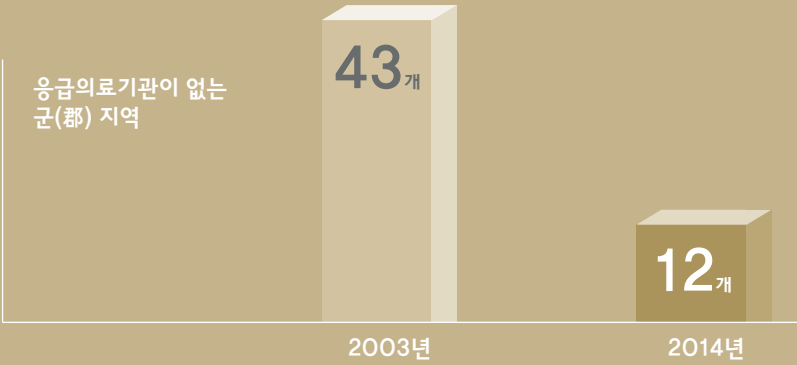


응급환자 생존율 증가

정책 사업명

취약지 응급의료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 정책 개요
- 농어촌 취약지의 응급의료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 되었으나, 농어촌과 대도시의 응급의료 질적 수준은 여전히 격차가 큼
- 취약지 응급실은 전문의가 없어 CT를 찍어도 판독이 어려워 대도시로 이송됨



- 농어촌 취약지가 아니더라도 전문 의료인력이 부족한 요양병원 등에서는 응급상황 대처, 진단 등에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생
- 또한 중증응급환자는 일정시간(Golden time)*에 치료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므로, 환자가 발생한 그 장소, 그 시간에 응급진료가 가능해야 함
- * 중증외상 1시간, 심혈관질환 2시간, 뇌혈관질환 3시간 내 치료 필요

ICT 기술을 활용하여, 대도시 거점병원에 상주하는 전문인력이 농어촌 취약지 등의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정책 내용
- ① 원격협진 시스템 지원
- (지원내역) 거점병원과 취약지 병원이 협진 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취약지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을 효과적으로 대도시 거점병원으로 전달하고 자문 받을 수 있는 환경 제공
- 거점병원의 응급실과 전문진료과 전문의가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협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기능) 화상통신·회의, 진료기록 공유 (이미지+동영상), CT-X-ray 등 PACS* 공유, 다중 플랫폼 사용자 환경(PC + Mobile)
- PACS :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 (추진방향) 시스템 구축 1차(상반기)와 2차(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
- (1차 구축) CT 등 PACS 영상을 공유하고, EMR 등은 취약지 병원의 화면을 그대로 전송(이미지 또는 동영상) 하여 거점병원 응급실 또는 전문의 스마트폰에서 조회
- (2차 구축) 진료정보 등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 각 병원에 적용하고, 일선 병원의 시스템 사용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요구 반영

- ② 취약지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
- (목적)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도시 거점병원과 1차 응급의료기관 사이에 상시적인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
- (교육)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되는 공보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및 원격협진에 대한 교육 실시
- (사례관리) 거점병원 담당전문의와 취약지 병원 의료진이 참여하는 원격 컨퍼런스를 월 1회 이상 개최
- * 지역의 실제 사례 중심으로 초기응급처치, 진단 및 협진, 거점병원으로 이송 등 논의

- 주요 성과
- 대도시 7개 거점병원,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42개를 대상으로 영상정보 및 진료기록 상호 공유 시스템 구축, 협진서비스 착수(5.6 개시)

- 대도시 거점병원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육, 원격협진, 품질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 개선
- 취약지 병원에서는 다양한 응급환자에 대비한 전문의 확보가 어려워 해당 인력이 있는 거점병원과 ICT 기술을 통해 협력체계 구축함으로써 취약지 응급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
- 이를 통해 대도시에서라면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취약지에 거주했기 때문에 사망하지 않는 등 취약지 응급환자의 생존율 제고

정책 담당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전산사무관 서민수, 주무관 김미정






“그간의 노력으로 농어촌 취약지의 응급의료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되었으나, 농어촌과 대도시의 응급의료 질적 수준은 여전히 격차가 큼니다. ICT 기술을 활용하여, 대도시 거점병원에 상주하는 전문인력이 농어촌 취약지 등의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취약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망하지 않도록 동 사업이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노후. 이젠 ‘농지연금’으로 준비 하세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중원리. 이곳에서 태어나 15살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전찬진 씨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는 농지연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농업인이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가능하게 해주는 농지연금은 지금처럼 극심한 가뭄철에 단비와 같은 존재이다.



정책수혜자
전찬진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중원산로 525
-  1949년
-  1963년부터 52년간 농업 종사
-  논 1300평, 밭 2700평
농지연금 가입(논 570평, 밭 600평)
-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지사
농지은행처 박수향
031-770-8014
psh9710@ekr.or.kr



수혜자
개인



정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지급시점
2015년



월 지급액
약 110만원

노후가 걱정되던 농업인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중원리. 이곳은 경기도 동부 끝자락으로 강원도 홍천과 인접하고 있고, 용문산 줄기인 중원산계곡의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1949년에 태어나 15살 때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전찬진 씨(67). 그는 아내, 그리고 결혼한 아들네 식구와 함께 살며, 농사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인이다. 논 1,300평, 밭 2,700평 규모에 재배하는 작물들로는 들깨, 참깨, 콩, 벼, 배추, 마늘 등 재배할 수 있는 건 모두 재배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솔직히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피력했다.



1,2
전찬진 씨의 논 570평과 밭
600평이 농지연금에
가입되어있다.

“요즘 농산물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팔고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 같이 농사일만 평생 한 사람들은 다른 할 일도 별로 없어요.
국민연금도 들지 못했고, 솔직히 노후가 좀 걱정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그가 1년 전 농지 연금 가입조건 완화를 통한 제도 개선으로
농지 연금에 가입을 하면서 노후에 대해서 한숨 놓게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가입조건이 완화되어 농지연금에 가입한 전찬진 씨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해주는 정책이다. 그러나
실제로 농지연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가입조건이 어려워 신청을
못하거나, 이자율과 감정 평가율이 만족스럽지 못해 가입을 망설이는

“나같이 농사일만
평생 한 사람들은
다른 할 일도 별로 없어요.
국민연금도 들지 못했고,
솔직히 노후가
좀 걱정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한다.

“농지연금 정책 완화 이전에는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어요. 저는 65세가 넘었지만, 아내는 당시에 60세로 농지연금
가입 조건에 충족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자율이 2014년 이전만
해도 4%나 되었기에 연금을 선뜻 받기에 부담도 컸던 것이 사실
이에요.” 농지연금 가입자인 전찬진 씨의 말이다.

농지연금 제도개선 이전 상황에서는 부부 모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만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면, 제도개선 후부터는 농지소유자만
만 65세가 넘었다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기 때문
이다. 또한 농지연금의 이자율이 2014년 이전까지는 4%였었는데,
3%로 인하가 되어 이자에 대한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다.

소유하고 있는 논 570평과 밭 600평을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 후,
전찬진 씨는 현재 매월 약 11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는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고, 연금까지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여유
있는 노후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환하게 웃었다.

‘농지연금 제도개선’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로

이번 농지연금의 개선된 내용을 보면 위에서 사례로 언급한 가입 조건 완화 외에도 고령 농업인의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먼저 2014년 1월에는 이자율을 기존 4%에서 3%로 인하하였고, 담보 농지의 평가방법을 기존의 공시지가 100%에서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 평가율 7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기존의 가입비였던 담보 농지 가격의 2%를 폐지하였다.

2015년 1월에는 담보농지의 감정 평가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고, 가입 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용의 납부편의 (농어촌공사가 먼저 대납하고 나중에 징수) 또한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결과는 수치로도 바로 나타나고 있다. 15년 11월 말 기준, 농지연금의 신규 가입은 전년의 992건에서 1,180건으로 19%나 증가하였고, 감정평가 가입건수는 전년도 156건에서 307건으로 197% 증가했다. 신규 가입자 월평균 지급액도 2014년 96만 원에서 103만 원으로 7.3% 증가했다.

1
농지연금 가입으로 여유 있는
노후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활짝 웃었다.



2
전찬진 씨는 15살부터 지금까지
약 52년간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일련의 증가된 수치를 통해 이번 농지연금 제도개선이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위한 준비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지연금 제도 개선으로 위에서 사례로 언급한 전찬진 씨와 같은 농업인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겠지만, 농촌인구 감소와 밭고 먹기 어려운 수입 농산물이 점점 증가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우리 식탁을 책임져주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사례이기 때문에 더욱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행 후 변화



전국 연금 가입자 증가
* ('11) 911건 → ('15) 5,143건



이자 부담 감소
* ('14) 4% → ('15) 2.5%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 매월 110만원 상당의 연금 수령

정책 사업명

농지연금

■ 정책 개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11~)

가입조건 :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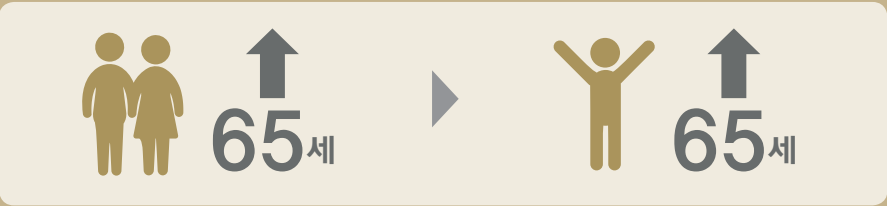
대상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써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 정책 내용
- 농업인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자금 지급
- 월 지급금 : 상한액 3백만원/월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
 - 지급방식 : 종신행(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기간형(일정 기간 매월 지급 : 5년형, 10년형, 15년형)
 - 담보물 평가 : 개별 공시지가 100%, 감정평가 80%
 - 고령농업인의 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농지연금 장점

- 부부 모두 보장, 담보농지 자경 또는 임대 가능, 재산세 감면, 채권행사 범위 제한

- 제도개선 내용
- ('14.1) 이자율 인하(4 → 3%),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 100% →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율 70% 중 가입자가 선택), 가입비(담보 농지가격의 2%) 폐지
 - ('14.5) 가입연령 조건완화(부부 모두 만 65세 → 가입자만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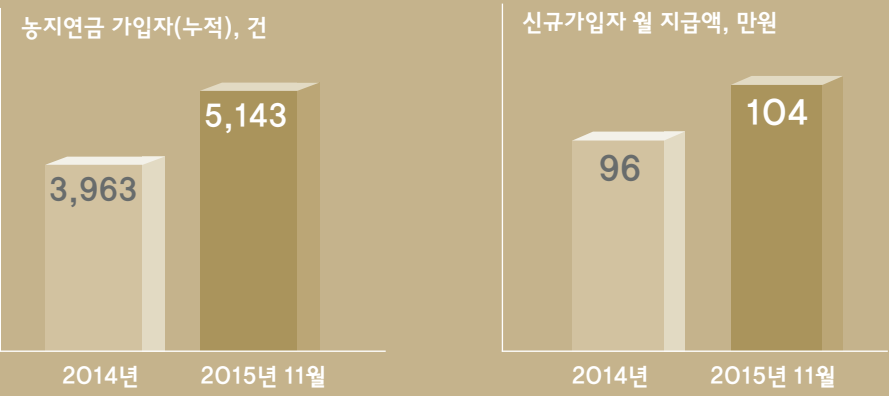
- ('15.1)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70 → 80%), 가입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용 납부편의 제공(농어촌공사 先 대납 後 징수) 등
- ('15.8) 이자율 인하(3 → 2.5%)
- ('15.10) 소유농지 면적 제한 폐지

■ 주요 성과

가입요건 완화, 감정평가율 상향, 가입비 폐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가입건수가 증가되고, 가입자의 월 지급액이 상향되어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

가입실적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1월	누 계
가입건수(건)	911	1,291	725	1,036	1,180	5,143
(누적건수)	(911)	(2,202)	(2,927)	(3,963)	(5,143)	-
총 지급액(백만원)	7,171	15,333	22,684	29,035	36,479	110,702

- 신규가입자 월 지급액(만원) : ('13) 83 → ('14) 96 → ('15.10) 104
 - 주요 제도개선 사항 : 가입연령 조건완화(부부 모두 만 65세→가입자만 65세 이상), 가입비(농지가격의 2%) 폐지,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및 감정평가율 상향(70→80%), 이자율 인하(4 → 3 → 2.5%), 소유농지 면적제한 폐지 등



정책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와 행정사무관 박홍진, 주무관 박선영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농업인 대부분의 노후생활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 고정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지를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여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농촌형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을 도입했습니다. 제도로입 이후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입요건을 완화했으며, 감정 평가율 상향 및 가입비 폐지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 홈’ 농촌 고령자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다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서화2리. 이곳은 ‘병영 추억의 고장’답게 민가보다 군부대가 많고, 서울보다 북한이 훨씬 더 가까운 강원도 최북단의 농촌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올해 초에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공동시설이 조성되었다. 노인들은 공동생활 홈에서 생활비 부담도 덜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노인들과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갈수록 고령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고,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인제군 원통면 서화2리의 공동시설은 타 농촌마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정책수혜마을
인제 서화2리 마을

- 홍성배
- 강원도 인제 서화2리 마을회관
- 1961년
- 리모델링 2억
공동생활 홈 운영비 연 1천만원
입주자 1인당 월 5만원
- 인제군 경로가족과
김만중
033-460-2051



수혜자
지역



정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연도 및 기간
2014년 / 1년



지원 및 자부담 금액 비율
94% / 6%

방치되었던 마을회관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서화2리. 필자가 15년 전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하기도 했던 ‘병영의 추억’이 가득한 고장이다. 이곳은 2002년 강원도 새농어촌 건설 운동 우수마을, 2004년 백무대간 우수마을, 2010년 평화빌리지 마을로 선정된 이력이 화려한 농촌 마을이다.

이곳에는 148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데, 노인회관에 등록되어 있는 고령노인이 70여명이 넘는 정도로 고령층 비율이 높은 마을이다.

2004년도에 마을회관을 신축하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활용도가 떨어져서 2층 마을회관만 마을에서 연 4회 정도 이용하였고, 1층 건강관리실은 활용도가 거의 없어 방치되다시피 했다고 마을 이장인

홍성배 씨(55)는 굶직하면서 저음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
“마을회관 1층은 원래 건강관리실이 있었어요. 노인 분들이 운동 기구로 운동을 했는데 8년 넘게 사용을 했더니 기구들이 대부분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도 잘 안되었고요. 그러다보니 점점 사용하는 인원이 없어 거의 방치가 되었죠.”

농촌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구원투수 될 수 있을까?

서화2리는 인제군의 최북단에 위치해 많은 군부대와 지역주민이 공존하는 농촌마을이다. 총 인구의 19.2%가 고령 노인층으로, 이들 고령 노인층은 정서적 교류 단절로 인해 우울증과 외로움에 노출된 취약 계층인데, 문제는 이런 취약계층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속한 노인독거가구 증가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급격하게 악화시키고 있다. 주택 노후화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겨울철 난방을 미실시하기도 하고 사회적 관계 단절과 질병 등으로 우울증과 자살 그리고

1
마을회관 1층은 리모델링을 통해 정원 6인의 공동 거주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2
공동 거실에는 대형TV, 컴퓨터 등의 생활집기가 비치되어 있다.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 공동생활 홈은 이러한 농촌 노인들의 삶의 질이 점점 하락하는 배경 속에서 나온 정책 중 하나이다. 2014년 3월, 마을 이장인 홍성배 씨는 서화면사무소에서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꼼꼼하게 사업신청서를 준비해 지원을 했다고 한다. 준비를 잘 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서화2리는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사업과 연계하여 인제군에서 농촌고령자맞춤형 공동시설 조성 시범 마을로 선정이 되어, 마을회관 리모델링(공동생활 홈 구축)을 위한 지원금 2억원, 공동생활 홈 운영 지원금 연 1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공동생활 홈은 고령노인들 끼리 함께 서로 안락한 노후를 즐기라는 뜻으로 ‘동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공동생활 홈 시설의 설계는 건축학 교수인 총괄계획가의 자문을 받아 거주자의 편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했고, 시행단계에서는 실무경험이 많은 건축기사 1급 공무원이 설계용역을, 건축공사는 도시개발과 건축시설 부서가 맡는 등 분야별로 전문 공무원을 임명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꾀했다.

공동생활 홈의 입주자 평균연령 ‘80세’

금년 공동생활 홈 ‘동행’에는 총 3명의 독거노인이 보금자리를 틀었다. 이분들은 모두 78세가 넘는 무주택 독거노인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 제일 나이가 적은 분이 78세고, 80세, 그리고 83세의 할머니를 포함 모두 3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80세가 되겠군요. 무엇보다 중요한건, 이분들이 모두 집에서 혼자 생활하신다는 겁니다. 혼자서 밥 먹는 것도 무섭고 잠자는 것도 무섭고 해서 밤새도록 TV를 틀어놓고 생활을 했다고 해요.” 마을 이장인 홍성배 씨의 말이다.
공동생활 홈의 입주대상자는 서화2리 마을에 주민등록을 한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에 한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제 1순위로 선정하고 있다. 서화2리



1
2층 마을회관은 월 1회 이상 마을 대소사를 의논하는 회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2
홍성배 이장은 시간이 갈수록 활용도가 떨어지던 마을회관이 어르신들의 활력이 넘치는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했다며 매우 기뻐했다.

이장 홍성배 씨에 따르면, 마을 운영 위원(이장과 유사 등 7명으로 구성)과 노인 회장 협의와 심의를 거쳐 선정을 했다고 한다.

공동생활 홈의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받는 1천만 원의 보조금과 함께 입주자 1인당 월 5만 원의 자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원 금액은 난방비, 전기료, 화재보험료, 상하수도요금과 같은 공공요금과 입주자 프로그램 운영비, 식재료비 등의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있다. 자부담금인 1인당 월 5만 원은 입주자 분들이 마을 운영위원회, 그리고 인제군청 공무원과 서로 협의해서 자발적으로 정한 금액이라고 한다. “어차피 집에서 혼자 생활해도 전기세, 수도료, 식비 등 들어가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있으니 정부의 도움에만 100% 의존하는 것보다는 일정액의 자부담금을 부담해서 식비라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생활 홈은 정부에서 지원한 리모델링 비용 2억원으로 건축이 되었고, 인제군청 노인정로과에서 연 1천만 원을 지원받아 상반기에 5백만 원, 하반기에 5백만 원의 운영 경비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한다.

종합 만족도는 일단 합격

위에서 사례로 언급한 서화2리의 공동생활 홈과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공동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152개소가 조성이 되었다고 한다.

"혼자서 밥 먹는 것도 무섭고, 잠자는 것도 무섭고 해서, 밤새도록 TV를 틀어놓고 생활을 했다고 해요."

공동생활 홈이 70개소, 공동급식시설이 54개소, 작은 목욕탕이 28개소이다.

이러한 공동시설의 확산은 주거비와 식비 등 일상생활의 비용을 감소시켜 농촌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실제적으로도 공동시설을 이용한 농촌 고령자의 종합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목표 75%보다 높은 78.8%의 비율로 만족감을 표시하였고, 특히 거주(91.4%)와 정서적(92.9%) 부문에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한 난방비(월 30만원에서 10만원), 공과금, 주택 임대료 등 거주에 소요되는 비용(월 11.6만원에서 5.3만원)이 절약되었고, 청소(월 24.6회에서 28.8회)와 세탁(월 9.8회에서 11.4회) 횟수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다. 앞으로도 농촌의 고령화와 독거노인층 증가는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만약 노령화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면, 우리 식탁을 책임져주는 농촌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제군 서화2리의 공동생활 홈은 농촌 고령화와 농촌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충분한 귀감이 되어 준다고 생각한다.



시행 후 변화



주거, 영양, 위생 여건 개선
* 식사횟수 일평균 0.5회,
목욕횟수 월평균 4.3회 증가



일상생활 비용 감소
* 거주비용 월평균 6.3만원 감소



고독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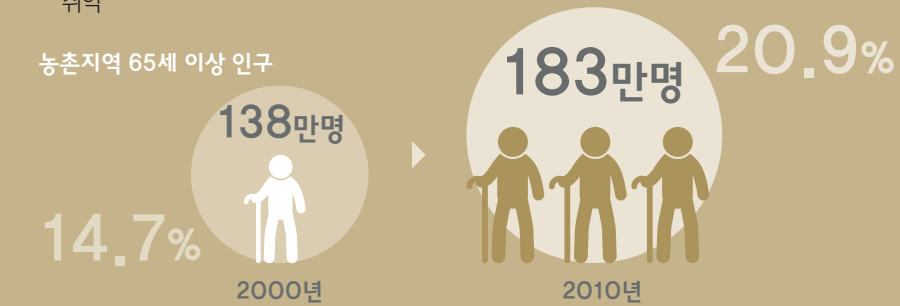
정책 사업명

농촌 고령자 맞춤형 공동시설 조성

정책 개요

농촌지역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독거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 주택 노후화, 비용 부담으로 인한 겨울철 난방 미실시 등 농촌 지역 노인들의 기본적 삶의 질은 취약



- 사회적 관계 단절, 질병 등으로 우울증, 자살, 고독사 증가
 - 농촌지역 65세 이상 독거가구 : ('00) 28만 가구(9.2%) → ('10) 44(13.3)

정책 내용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한 고령자 복지·문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접근성이 좋은 마을·읍면 중심지에 있는 기존 공동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고령자 맞춤형 공동이용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의료·복지·문화 등 서비스 연계

*'14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신규 추진(국비 42억원)

〈 공동시설 유형 〉

- (공동생활홈)** 농촌에 거주하는 둘 이상의 고령자(가구)가 모여 식사, 취침 등 주거 생활을 함께 하는 시설 또는 주택
- (공동급식시설)** 다수의 지역 거주민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리 및 식사 설비 등을 갖춘 시설
- (작은목욕탕)**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공동이용시설에 연계 가능한 서비스 프로그램 발굴 및 관계 부처 협업 체계 구축('14.1)
 - * 건강 100세 노인운동 등 복지부·문화부 소관 10개 프로그램 연계
- 사업 추진 과정의 조정, 자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선정하여 도별 1명씩 위촉·운영
 - 주요 역할: 사전 기획 설계, 건축 설계 도서 검토·자문, 시공과정 점검, 주민 협약 지원 및 사업 모니터링·평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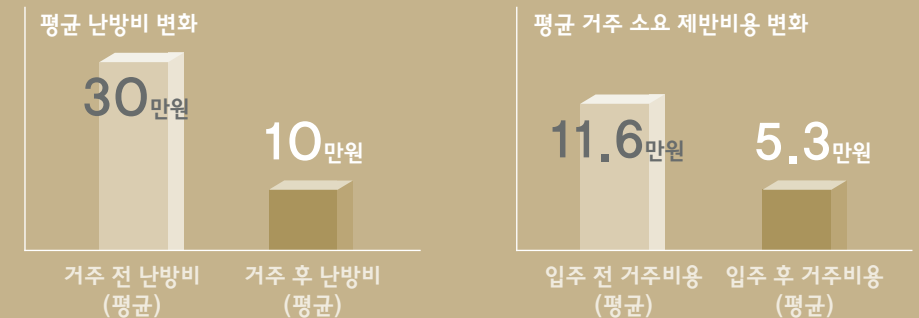
주요 성과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복지·의료·문화 등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

- 공동생활홈 등 고령자 맞춤형 공동시설 152개소 조성('14~'15)
 - 예산 : ('14) 4,150백만원, 75개소 → ('15) 4,200백만원, 77개소
- 공동생활홈 70개소, 공동급식시설 54개소, 작은목욕탕 28개소
- 공동생활방식의 확산으로 독거노인의 외로움·불안감 감소 등으로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 및 고독사 감소 기대

공동시설 이용을 통해 주거·영양·위생 여건이 개선되고, 또한 주거비, 식비 등 일상생활 비용도 감소하는 등 농촌고령자 삶의 질 향상

- 이용자 종합 만족도 78.8%로 목표(75%) 대비 105.1% 달성
- 공동생활홈의 경우 거주(91.4%) 및 정서적(92.9%) 부문에 높은 만족감 표시
 - 난방비, 공과금, 주택 임대료 등 거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약
 - * 난방비(30만원/월 → 10), 그 외 거주 제반 비용(11.6만원/월 → 5.3)
 - 기타 청소 및 세탁 횟수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질도 크게 개선
- 작은목욕탕 개장 이후 월 평균 목욕횟수가 3.2회/월 증가(4.7회/월 → 7.9)



정책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행정사무관 임기창, 주무관 강경미

“주택 노후화, 거주 비용 부담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영세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공동이용시설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을 추진하였고, 복지·의료·문화 등 영세고령자 및 영세 독거노인 맞춤형 서비스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공동시설 이용을 통해 주거·영양·위생 여건은 개선되고 주거비, 식비 등 일상생활 비용은 감소했습니다. 농촌 고령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이 관여하므로, 중앙 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공공과 민간간, 지방 내부서 기관간에 협업이 필요합니다.”



II

교육

4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 교육부

5

농어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김제토요학교)
- 김제시 / 김제교육지원청

‘스마트 교육’이 산촌의 분교를 살리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깊은 산골에 있는 한 소호분교를 찾아보았다. 도시에 있는 여타 학교에 비해서 화려한 문명의 혜택은 덜 받을지 모르겠지만, 자연을 친구삼아 교감하며 뛰어노는 아이들의 표정에서는 그 어떤 아이들보다 더 행복함이 흘러넘쳐 보였다. 이곳은 최근 스마트 패드와 무선 인터넷망을 활용한 스마트 교육을 실시하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산촌 분교 아이들이 스마트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끼를 무럭무럭 펼치고 있는 현장을 한 번 만나보자.



-  오수홍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당리길 1
-  1978년
-  교사
-  울산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이길호
052-210-8331
dl195@use.go.kr



수혜자
특정단체(학교)



정부부처
교육부



지원년도
2013년



지원 / 자부담 금액비율
82% / 18%

깊은 산 속 소호분교. 누가 와서 공부하나요?

KTX 울산역. 역명이 보여주는 대표성과 달리 KTX 울산역은 울산광역시의 외곽지역인 울주군에 위치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공업 단지가 있는 곳이다. 높은 빌딩과 공장 단지로 가득한 도시 만을 상상했던 터인데, 울산역에 도착해서 역사 앞의 전원 풍경을 보고는 혼란스러웠다. 실제로도 비즈니스 정장 차림을 한 수많은 승객들이 울산역을 분주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전원 속에 위치한 울산역에서 렌터카를 몰고 약 30분을 달리자 산세는 더 깊어졌고, 내비게이션에 표시되는 현재 위치는 천년 고도 '경주시'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이곳은 숲이 울창하고 아름다워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울산의 산악지대였다. 꽤 높고 구불구불했던 골짜기를 빠져나오자 실개천이 흐르고 있었고, 그 실개천 너머로 아름다운 초등학교가 나타났다. 이곳은 바로 울산 유일의 소호분교인 궁근정초등학교 소호분교다. 궁근정초등학교 소호분교는 교직원 14명, 6개 학급에 총 학생수가 48명인 산촌의 아담한 학교다.

이곳에서 2013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오수홍 소호분교장을 만나 보았다. 그는 이 소호분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인근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도시에서 짧게는 1개월 동안, 아니면 아예 전학을 오는 아이들도 있다고 했다. 순간 이 깊은 산골까지 유학을 오게 만드는 소호 분교의 매력이 궁금해졌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스마트 교육’

1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UCC 제작활동으로 관심을 갖게된
영어 연극으로
울산초등영어연극제에서
단체 우수상을 수상했다.

4~5년 전만 해도 울산 궁근정초등학교 소호분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소호분교처럼 폐교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고 한다. 2009년도에 학생 수는 고작 12명이었고 교육여건도 좋지 못했었다. 컴퓨터실에는



2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은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엄청 재미있어요.
수업 내용도 머리에 쏙쏙 잘 들어와요.
다른 친구들도 선생님이 스마트패드로 수업하는 거
아주 좋아해요.”

노후화된 컴퓨터 10대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고장이 나거나 속도가 느려 수업에 활용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울산 궁근정 소호분교는 교육부의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알게 되었고, 이에 지원해서 수혜를 받게 되었다. 이 정책의 취지는 농어촌, 벽지의 학생들도 정보화 기기를 활용,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학습 환경을 제공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궁근정초등학교 소호분교는 스마트패드인 갤럭시노트 10.1 10대를 지원받았고, 교실 7개에 무선 인터넷망이 구축되었다.

어찌 보면 그리 대단하지 않은 지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학생 수가 적은 소호분교였고 그동안 스마트 교육이 거의 실시되지 않았던 곳이기에 그 활용도와 유용성은 대도시의 학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먼저 교과교육과정에 ICT를 활용하자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집중도와 관심이 부쩍 증가하였다. 실제로 과학실에서 UCC 제작을 하고 있던 6학년 학생에게 스마트패드를 통한 수업이 어떤지 물어보았다.

“엄청 재미있어요. 수업 내용도 머리에 쏙쏙 잘 들어와요. 다른 친구들도 선생님이 스마트패드로 수업하는 거 아주 좋아해요.”

방과 후에는 스마트패드의 ‘아바타 레벨업 활동’을 통해 교과학습 부진 학생들의 학력 및 자기주도 학습 태도를 신장시키는 데에도 활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는 셀프 교육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스마트패드를 활용해 창의성을 발휘 하도록 했다. 취재를 위해 찾았을 때에는 마침 아이들이 방과 후에, 낙엽이 가득 떨어진 운동장에서 선생님과 스마트패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곧 있을 졸업을 앞두고 UCC 동영상 제작을 하고 있다고 했다. 벽지 산촌의 아이들이 낙엽을 날리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와 춤추는 모습 등을 스마트패드의 사진, 동영상 앱을 이용해 담고 있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

스마트해진 소호분교의 아이들

교육과정 속에 녹아든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은 긍정적인 수치와 결과로 이어졌다. 오수홍 소호분교장에 따르면, 우선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학교와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공근정초등학교 소호분교의 학급 수와 학생 수도 매년 증가하였다. 2012학년도 4학급 27명에서, 2015년에는 6학급의 47명으로 대폭 증가하여 6학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도에는, 아이들이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UCC 제작활동으로 영어 연극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제 6회 울산초등영어연극제에서 단체 우수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다. 이는 벽지지역의 학교에서는 최초의 수상이라고 하니 더욱 의미가 깊을 것이다.

그 외에도, 제17회 강남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서 7명이 수상을 하였고, 제4회 어린이영상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스마트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수상을 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아이들의 자신감 또한 상승했다. 스마트 교육으로 점점 더 스마트해진 소호분교의 아이들이다.

‘스마트 교육’ 활용으로 ‘찾아오는 학교’가 될 때

울산 공근정초등학교 소호분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ICT를 활용한 스마트 교육은 이제 현 시대의 자연스런 흐름이 되었다. 또한, 벽지·농어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교육법인 것이 결과로서 판명되었다. 정보 기기를 활용한

1
오수홍 소호분교장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
ICT 활용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스마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스마트패드의 사진, 동영상 앱을 이용해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런 교육법은 한국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강남지역의 학부모들도 인정하고 따라하는 북유럽 국가의 교육 방법과 일맥상통하며 이수홍 분교장도 그 가치를 인정했다.

한국은 정보화망과 스마트 기기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발달했고 널리 보급된 곳이다. 이런 장점을 우선적으로 교육여건이 낙후된 벽지와 농어촌의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활용한다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먼저 ‘찾아오는 학교’가 될 것이고, 이곳에서 배운 아이들도 자신감을 갖고 도시 학교의 아이들과 공평한 경쟁을 펼칠 것이다. 스마트 교육과 함께 더욱 발전해 갈 소호분교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해 본다.

시행 후 변화



ICT 교육 환경 개선
* 컴퓨터 10대 → 태블릿 PC 10대,
무선인터넷망 7교실 설치



학업성취도 향상
* 청소년과학탐구대회 7명 수상
* 어린이영어페스티벌 우수상 수상



학생 수 증가
* 27명(2012년) → 47명(2015년)

정책 사업명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 정책 개요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필요

- 좋은 강의, 영어 교육, 문화콘텐츠 등을 어떻게 제공하고 학교 등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실질적 실천 방안 마련

농촌학교의 약 40%가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로, 복식수업, 방과후학교 운영 제약, 또래학습 결여 등 열악한 여건

- 대부분 농촌학교 인근에 학원이 전혀 없어 학습결손 보충이 어렵고 영어 및 예체능 능력 계발에도 한계 (농촌 학교 기피의 큰 원인)
- 도·농간 기초학력의 격차는 작으나, 고학년일수록 특히 중학교 단계 보통이상 수준에서 격차가 크게 발생

아동기·청소년기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각종 체험기회 부족

- 열악한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체험기회 제공 기관 및 장소 부족
- 기초수급자,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경제적·구조적 취약계층 가구의 증가로 가정의 관심과 돌봄기능 약화

* 기초수급자 학생비율 : 도시 2.9% < 농촌 4.1%

* 농촌 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수 : ('11)14,391명 → ('12)16,655명 → ('13)19,674명

지역의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리적 여건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부족

* 단위면적당 문화기반시설 수(개소/km²) : 농촌 0.01 < 도시 0.13

* 연평균 예술행사 관람횟수 : 농촌 3.7회 < 도시 5.1회

■ 정책 내용

농어촌 초·중학교에 ICT 인프라를 구축하여 예술·체육·인문·진로 등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농어촌 학생에게 양질의 학습 환경 제공

- 2015년까지 전체 농어촌 초·중학교(약 4,000개교)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ICT 인프라 구축



- ICT 신규 지원학교 담당자 워크숍, 사이버 연수, ICT 활용 매뉴얼 개발·배포 등 ICT 운영학교 교원역량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 주요 성과 농산어촌 전체 초·중학교에 ICT 인프라 구축 지원

농산어촌 초·중 학교 수	'13년 지원 학교 수		'14년 지원 학교 수		'15년 지원 학교 수		타사업** 및 자체지원 학교 수	
	스마트 패드	무선 인터넷	스마트 패드	무선 인터넷	스마트 패드	무선 인터넷	스마트 패드	무선 인터넷
4,008*	300	286	1,434	1,394	1,745	1,821	529	507

- 교당 스마트 기기 10대 내외 및 무선인터넷망 1실 구축

* 농어촌 초·중학교 수 4,021교('14.4.1기준) 중 통폐합 및 휴교예정 학교 제외

** 농산어촌 ICT 현황조사('15.2)

오프라인 면대면 멘토링 및 온라인 1:1 개별 멘토링(전남, 경남)을 통해 ICT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 및 체험 활동 등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013년 : 멘토링 298교, 온라인(EBS), 오프라인 멘토링 평균 80시간 운영,

2014년 : 멘토링 1,915교, 오프라인 멘토링 평균 40시간 운영

농산어촌 ICT 활용 콘텐츠 통합서비스 제공

- 협력기관이 개발 및 확보한 콘텐츠의 분산된 서버를 일원화하여 교수·학습자료 통합 서비스 제공, 에듀넷(www.edunet.net) 연계 제공
- EBS, 문체부 산하기관 등 총 15개 기관과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 역사 등 9개 주제 콘텐츠 9,164건 서비스

정책 담당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행정사무관 이규열, 주무관 강재구**

“농촌학교의 약 40%가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로, 방과후학교 운영 제약, 또래학습 결여 등 교육여건이 열악합니다. 농어촌 초·중학교 전체에 ICT 인프라를 구축하여 예술·체육·인문·진로 등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농어촌 학생에게 양질의 학습 환경 제공 필요하므로 이번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 초·중학교 4,000여개 교에 스마트패드 10대 내외, 무선인터넷망 1실 구축을 지원하여 ICT 인프라 구축 하는 등 ICT활용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촌 할머니들이 진행하는 체험 교실 ‘김제 토요마을학교’

전라북도 김제시의 한 작은 농촌 마을. 이 마을은 매주 토요일마다 어린이들의 재잘대는 소리로 활력이 넘친다. 김제시의 관내 초등학생들이 체험학습을 받기 위해 농가를 찾기 때문이다.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은 백발이 성성한 마을의 주민 할머니들이다. 고령의 농촌 어르신들이 어린이들을 지도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소득도 창출하는 김제 토요마을학교의 현장에 다녀와 보았다.



정책수혜마을 김제 궁지호박마을

- 이장 주상현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하서3길 69-3
- 1965년
- 농업인
- 수혜세대 19가구
- 전북 김제시 농촌지원과 이호성
063-540-4515
200uk@korea.kr



수혜자
지역



지자체
김제시 / 김제교육지원청



지금시점
(‘14)시범운영, (‘15)본운영



수혜인원
궁지마을 주민 40명, 학생 320명

호박이 열리는 마을에 아이들이 찾아오는 이유

늦은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1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로 유명한 김제평야의 중심지 전라북도 김제시의 한 농촌마을을 찾았다. 2014년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농촌건강장수 마을’로도 선정이 된 이 마을의 이름은 궁지호박마을로, 호박을 노인 소득 작물로 선정해서 집집마다 재배하고 있다.

궁지호박마을에서는 매주 토요일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험학습인 ‘김제 토요마을학교’가 진행된다. 학생들은 토요일마다 다른 학교의 친구들과 함께 김제의 여러 농가를 순차적으로 돌면서 재미있는 체험활동을 받는다고 했다.

취재를 위해 궁지호박마을을 찾았을 때에는 마침 김제 토요마을 학교가 열린다고 했다. 백발이 성성한 마을의 고령 할머니들이 체험 학교를 위한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한 마을 할머니께서는, 원래는 이 날 체험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냇가에서 고기 잡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삼각김밥과 비누 만들기 체험으로 대체를 했으며 무척 아쉬워했다. 궁지호박마을의 젊은 마을이장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주상현 씨는 호박마을에서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고 했다. 냇가에서 고기를 잡는 생태체험을 비롯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및 특산품 만들기, 마을 투어 체험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단다. 그는 또, 아이들 체험 교육 진행을 위해서 마을의 고령 어르신들이 작년 전국 곳곳을 다니며 수업도 듣고, 관련 자격증도 취득했다고 귀띔을 해 주었다.

손자·손녀 만난 것처럼 아이들이 반가운 마을 주민들

1 김제 토요마을학교 할머니들이 체험 교실에 참여하러 온 아이들을 반기고 있다.



2 궁지호박마을 이장님이 김제토요마을학교에 참여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

3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길 반복했다. 10여 분이 지나자 김제 시내 2곳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논두렁 너머의 좁은 길로 들어오고 있었다. 노인 회관까지는 길이 좁아 관광버스가 들어올 수 없어 마을의 오래된 건축물인 서원 뒤편에 버스는 정차해야 했다.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려 우산을 쓰고는 삼삼오오 한 줄로 노인 회관으로 난 길을 따라 재잘재잘 대며 걸어왔는데, 할머니들은 길 중간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어서와! 예쁜 아가들”이라고 인사를 건네며 포옹을 해주었다. 마치 오랜만에 시골을 찾은 손자·손녀를 만난 것만큼이나 반가워하는 마을 주민들의 표정이 그렇게 따뜻해 보일 수가 없었다.

궁지호박마을 이장님, 아이들 수업의 달인이 되다

아이들은 체험 학습 준비가 완료된 노인 회관 옆의 비닐하우스 안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먼저 마을 이장님의 궁지호박마을 소개가 시작되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로 가득한 비닐하우스 교실은 그 어떤 노련한 선생님이 있더라도 통제하기 어려운 통제 불능 상태에 가까워 보였다. 그런데 이장님은 이미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끌고 수십 회 교육을 진행한 달인답게 아이들이 교육에 잘 빠져들 수 있도록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능수능란하게 농가 교실을 지휘하고 있었다.



1
아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장님이 알려주는대로 비누를
만들고 있다.



마을 소개에 이어, 삼각 김밥 만들기 체험이 이어졌다. 할머니들이 준비해둔 밥과 김 그리고 각종 재료를 반죽 그릇에 부어 아이들이 직접 반죽을 하는 체험이었는데, 아이들은 반죽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서로 킁킁대며 밥을 자신의 입에 집어넣기 바빴다.

아이들은 또, 본인들이 직접 반죽해서 빚은 주먹밥을 마을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필자에게도 먹으라며 입에 넣어주는 기특한 행동도 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이들이 농가에서 체험을 하면서 인성 교육도 자연스럽게 받는다고 했다. 삼각 김밥 만들기 체험으로 배가 불러진 아이들은 김제 토요마을학교 체험의 두 번째 프로그램인 '비누 만들기' 체험을 시작했다. 뜨거운 액체를 틀에 붓는 작업이라 자칫 하면 다칠 수 있다는 마을 어르신들의 경고에 왈칵 겁이 났던 교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틀에 비누 액체를 붓고, 알코올을 뿌려 굳히는 체험을 할 때 아이들의 표정에는 진지함이 흘러 넘쳤다.

체험이 완료된 후, 아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비누를 들고 스마트 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부모님에게 전송을 하며 좋아했다. 수업 태도가 가장 좋았던 테이블에 좀 더 품질 좋은 비누를 상으로 주자 교실은 아이들의 환호성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작은 상품 하나를 두고도 이렇게나 격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영락없는 아이들이다.



2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아이들 체험학습이 준 선물 - '활력, 보람, 그리고 젊음'

3시간여 진행된 체험 후에 아이들은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초상권'을 운운하며 필자에게 귀여운 협박을 하며 사진 촬영을 거부하던 아이들을 보며 역시 아이들 통솔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느꼈다. 순간 아이들 30명을 진두지휘하던 궁지호박마을 이장님의 관록이 다시금 돋보였다.

아이들이 다시 관광버스에 오르며 작별 인사를 할 때, 마을 어르신들의 표정에는 아쉬움과 보람이 교차했다.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던 70세가 훌쩍 넘은 할머니들께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젊은 사람 하나 없는 이 농촌 마을에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매주 찾아오니 활력이 넘칩니다. 한창 장난기가 가득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받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보람될 수가 없어요.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이 나이에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뻐요. 이렇게 매주 아이들을 가르치며 재미있게 살고 있으니까 건강해질 수밖에요.”

이번 체험 학습으로 궁지호박마을의 2015년 토요마을학교 프로그램은 종료라고 한다. 내년에는 또 어떤 체험 학습으로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하나가 되어 즐거워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시행 후 변화



일자리 창출

* 7개 마을 28명('15)
* 어르신 1인당 30만원의 소득 창출



다양한 학습체험활동

* ('14) 5개 마을 2개 프로그램
('15) 7개 마을 8개 프로그램



학생들의 협력, 협동심 배양

정책 사업명

농어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김제토요마을학교

정책 개요

지역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수요증대와 다양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주말 학생 돌봄과 방과후활동을 지역의 마을공동체와 함께 운영
— 영세고령세대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한 수익모델 필요

정책 내용

마을과 함께하는 토요 방과후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학생 동원 지원
—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및 특산품 만들기, 생태체험, 마을 투어 체험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을학교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김제교육지원청, 김제시농업기술센터, 김제마을학교협의회 업무협약체결
— 토요마을학교 안전 점검 및 안전시설 확보
— 토요마을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체험학생 동원 지원
— 토요마을학교 강사비, 재료비 운영비 지원

2015년 김제토요마을학교 체험프로그램 추진내용

마을학교		교육프로그램			참여학교
마을명	주소	주제	주요내용	시기	
남포들녘마을	성덕면 지평선로 124	농촌체험	찰보리떡, 쌀피자등	상반기	만경초, 진봉초, 광활초
수록골마을	백산면 수록골길 50-10	국화체험	국화재배, 국화상품	상반기	공덕초, 종정초, 백석초
황토마을	용지면 용지로 672	농촌마을체험, 도예체험	황토, 농산물, 도예	상반기	용지초
외갓집마을	금구면 사방길 110-5	농촌마을체험, 동화책만들기	모싣임, 식생활, 동화책	상반기	용동초, 금남초, 남양초
벽골제두레마을	부량면 벽골제로 204	전통공예, 먹거리체험	한지, 도자기, 염색 등	하반기	김제동초, 월촌초
궁지마을	백산면 하서3길 69-3	농악체험, 들녘체험	농악배우기, 악기만들기	하반기	부용초, 황강초, 김제중앙초
산성메마을	금구면 월전4길 16-4	대공예체험, 먹거리체험	대나무, 먹거리	하반기	김제북초, 감산, 금구초
김제마을학교	김제시 7개 마을투어	김제농촌 마을 투어	먹거리, 놀이	하반기	김제감산초, 김제초

— 토요마을학교 소요예산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소요예산	산출내역	지원기관
차량비	18,480	330천원×7회×8기관	김제시농업기술센터
강사비	13,440	80천원×3명×7마을×8회	김제교육지원청
재료비	12,320	220천원×7마을×8회	김제시농업기술센터 김제교육지원청
운영비	2,240	320천원×7마을	김제시농업기술센터
계	46,480		
마을당 교육비(40명, 7회 기준) 약 5,000천원			

주요 성과

'14년 겨울방학 중 2개의 프로그램을 5개 마을에서 시범운영

주요 성과

참여 학생들과 마을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 '15년에는 학기별로 7개 마을에서 8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
— 참여학생수 : 시범운영 60여명('14. 12월) → 본 운영 320여명('15. 4~11월)



정책 담당 김제교육지원청 장학사 오선화,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김영희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와 김제교육지원청이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자 기획된 사업입니다. 참여 학생과 학교의 마을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86%, 프로그램 만족도 88%로 마을 학교 운영에 대한 반응은 좋았으며 시골의 작은 학교학생들이 주말에 다른 학교 학생들을 만나고 농경문화 관련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어 좋아하였고 다음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또한 마을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85% 이상 좋게 나왔으며 1인당 30만원의 소득창출의 기회가 되고 마을의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 역량이 강화되어 다른 정책참여도도 높아졌습니다.”



Ⅲ

정주생활기반

6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사업

- 미래창조과학부

7

LPG 소형저장 탱크 보급

- 산업통상자원부

8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마을에서도 이젠 빠르고 스마트한 인터넷!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도계마을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되는 등 국내 농촌 정보화 부문의 선구자 격인 마을이다. 이 마을은 최근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하면서 마을 주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롭고 편리한 방법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계마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자.



정책수혜마을
완주 도계마을

이장 이일규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간중길4
1938년
도계마을 이장
전라북도 완주군 행정지원과
한인수
063-290-2443
insu12@korea.kr



수혜자
지역



정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2014
지원시점
2014년



지원 금액비율
25%(중앙정부) / 25%(지자체)
/ 50%(통신사업자)

작지만 강한 '도계마을'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의 도계마을은 작은 농촌 마을이다. 그러나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도계마을은 그동안 만들어온 경력이 화려하다. 2003년도에 정보화 시범 마을로 선정이 되었고, 2009년도에 ‘참 살기 좋은 마을’, 2010년도에 ‘파워빌리지’, 2011년도에 ‘선도 정보화마을’ 그리고, 2012년도에는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

그동안 우수마을에 거듭 선정이 되어 지원받은 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는 김치체험장, 두부체험장, 그리고 김치공장과 두부공장을 건설했다. 이곳에서 생산한 김치와 두부는 로컬 푸드 매장을 비롯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호평을 받고 판매되면서 매년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고정된 일자리도 창출해 냈다.

작년 말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도계마을에는 광대역통합망(100Mbps)이 구축되기도 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사업이란 도시와 농촌간 네트워크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가 협력하여 전국 소규모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 농어촌 마을에서도 빠른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 검색, 인터넷 쇼핑, IT 기술을 활용한 사업 등 다양한 IT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망이 없어 손자·손녀들도 외면

1 마을 회관 2층에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 10대와 함께 해외 이주민을 위한 화상 전화 시스템도 갖추어졌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4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대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의 정보격차 지수가 69.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고령인구가 많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2 도계마을 두부공장에서 생산한 두부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면서 매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 기존 현수막과 안내장을 통한 오프라인 위주의 홍보를 ‘희망완주’ TV를 통해 할 수 있게 되었다.

접근의 욕구가 타 계층보다 적은 것이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

대부분의 농촌마을이 소규모다 보니 민간 사업자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기에 이윤이 남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 바로 위에서도 설명한 ‘농어촌 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활성화 사업’이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업자간 매칭 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통융합서비스가 가능한 100Mbps급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완주의 도계마을도 작은 농촌마을이어서 정책 시행 전에는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받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그래서 기존에는 완주군의 군정이나 행사가 있을 경우, 전통적인 방식인 현수막, 안내장, 신문보도 방식의 오프라인 위주로 홍보를 실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방송의 경우에도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회관에서만 안내가 가능했기에, 긴급한 안내가 있을 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도계마을의 이일구 이장이 말했다.

그는 또 농담조로 네트워크 인프라 부족과 관련한 재미난 예를 들려 주었다.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할아버지 집에 놀러오면,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고 무척 심심해한다며, 결국 하루도 못 버티고 도시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했다.

스마트폰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마을 방송이 가능

2014년 12월, 용진면 도계마을에도 드디어 100Mbps급의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이 완료되었다. 이제 작은 농촌마을에서도 도시와 차별 없이 초고속인터넷을 통한 정보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사업으로 도계마을은 먼저 기존 현수막과 안내장을 통한 오프라인 위주의 홍보 방식을 전파력이 큰 완주군청에서 운영중인 '희망완주' TV를 통해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마을 방송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편리해졌다. 기존에는 방송을 위해 누군가가 방송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마을회관에 와서 방송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마을 이장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전화만 걸면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마을 전역에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원칙으로 마을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은 아마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은 마을에 설치된 CCTV의 시스템 또한 지능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로써 마을 주민들의 안전 또한 더욱 보장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마을회관 2층에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 10대와 함께 해외 이주민을 위한 화상 전화 시스템도 갖추어졌다. 인근 간중초등학교 부설 선덕보육원 학생들이 도계마을 마을회관의 컴퓨터를 활용해 정보화 교육을 받아 대다수의 학생들이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또한 도계마을에 살고 있는 베트남 이주민이 화상 전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향의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하는 등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으로 마을 주민들의 생활이 무척 편리해졌다.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으로 농어촌에 새로운 기회를 줄 때

1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으로 도계마을에 살고 있는 베트남 이주민이 화상 전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향의 가족들과 화상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
이일구 이장은 도계마을이 준비된 마을이었기에 광대역망이 구축된 후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도계마을의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그동안 정보격차 지수가 낮았던 주민에게 소득 향상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농가에서 만든 김치와 두부는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의 혜택을 받아, 온라인 판매라는 새로운 판매 루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에서 사례로 든 도시의 손자·손녀뿐만 아니라, 최근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초고속 인터넷망이 갖추어진 마을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농어촌도 도시만큼 정보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갈수록 인구 감소로 황폐화되어 가는 농어촌에는 인구가 유입되어 다시금 활력이 넘치게 할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계마을의 마을 소개 책자를 보다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구호를 발견했다. 그동안 정보화 선도 마을로, 그리고 김치와 두부를 제조하는 ‘강한 마을’로 준비가 되었기에 도계마을에 이번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이라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닐까? 앞으로 많은 농촌마을도 도계마을처럼 광대역가입자망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

시행 후 변화



온라인 판매 시작

* 매출액 : ('14) 5.8억 → ('15p) 6억
* 주요매출처 : 로컬푸드직매장, 급식센터 등
* 주요판매품 : 김치, 두부, 누룽지 등



일자리 창출

* 도계영농조합법인에 13명 근무



정보화 교육 제공

* 마을회관 PC 10대 설치

정책 사업명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사업

■ 정책 개요

도·농간 네트워크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전국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IPTV 등 방송통신서비스가 가능한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 민간의 자율적 투자가 어려운 50세대 미만 농어촌 마을 대상, 다양한 방통융합서비스가 가능한 100Mbps급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지원

■ 정책 내용

정부, 지자체, 사업자간 매칭펀드(25%, 25%, 50%) 조성을 통한 추진으로 2015년까지 국비 약 226억원, 총사업비 약 906억원 투입하여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연도별 투입예산						(단위 : 억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비(국고)	36	36	34.35	34.35	50	69.1
총사업비	92	120	120	124	188	264.4

※ 국비지원금에 따라 지방비, 통신사업자 금액을 매칭하여 사업 추진

- '17년까지 소규모 농어촌지역 전체 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 100% 구축
- 전국 50세대미만 13,217개 마을(45만세대, 96만명, 360개 섬마을포함)에 광대역 가입자망(100Mbps급) 완성 목표
- 지역밀착형 특화 서비스 발굴·제공('14년 종료)
- 광대역가입자망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제공

— 터치스크린 방식 영상전화 단말 활용한 축사시설 관제, 마을방범CCTV, 실시간 원격 영농교육, IPTV기반 농촌 지역정보, 다문화가정 교육, IT기반 사과작황정보서비스, 희망완주 전용TV, 지능형CCTV 합체관리 등

■ 주요 성과

전국 50세대 미만 13,217개 대상 마을에 '10~'14년까지 8,783개(66.5%) 구축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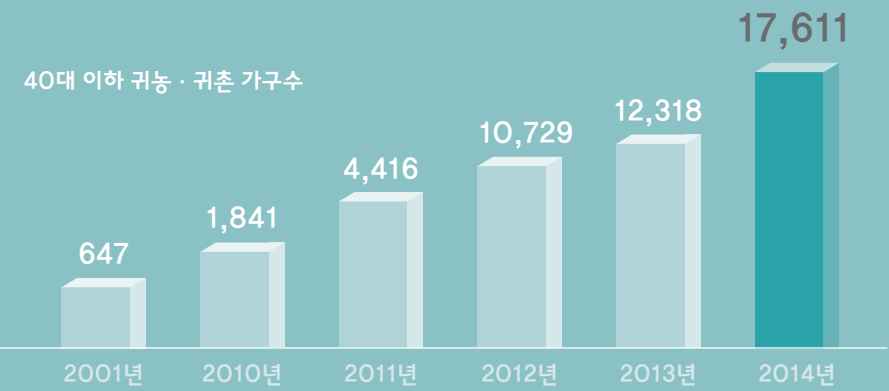
- 광대역망을 활용한 농어촌 지역 밀착형 서비스 발굴을 통해 '10~'14년까지 총 21종의 서비스 시범 제공으로 도시와 같은 방통융합서비스 제공환경은 물론, TV를 활용한 양방향 원격진료 및 상담, 원격교육, 영상통화 등 노인층이 많은 농어촌 주민에 적합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네트워크 인프라는 농어촌 거주민의 정보 접근권, 보건 복지, 교육, 문화 향유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격차 해소 사업으로 사회 통합에 필수적

4대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중에서도 특히 정보격차 지수(69.4%)가 낮은 농어민 정보격차 완화

※ '2014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보고서('15.3월, NIA)」의 계층별 정보격차 현황 : 장애인(85.3%), 저소득층(85.3%), 장노년층(74.3%), 농어민(69.4%)

귀농·귀촌인구 증가로 친환경 농산물 판매 사이트 운영 등 광대역망을 이용한 소득향상 기회 제공

※ 「귀농·귀촌인통계('15.3월, 통계청)」4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수 : ('01) 647 → ('10) 1,841 → ('11) 4,416 → ('12) 10,729 → ('13) 12,318 → ('14) 17,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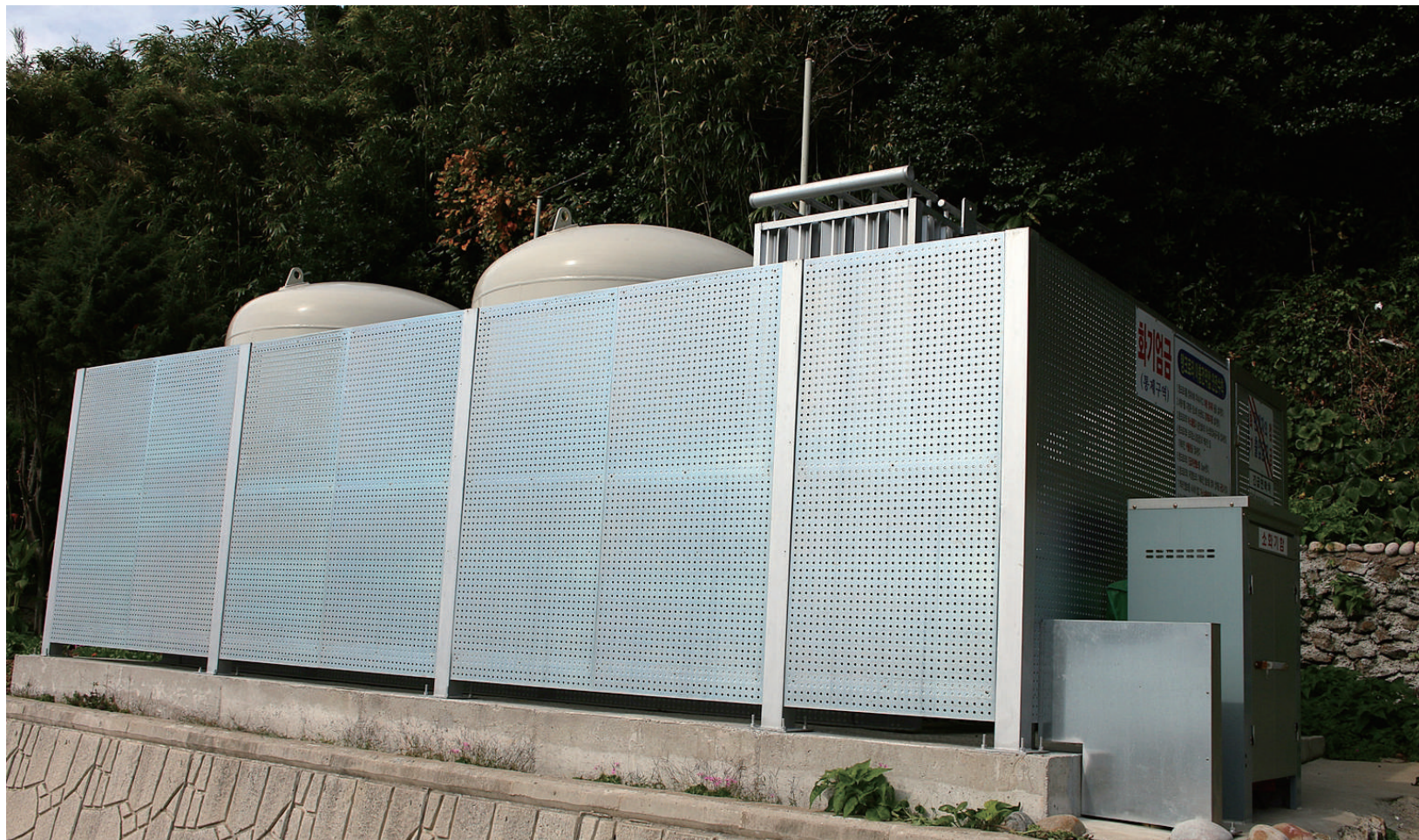


정책 담당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 사무관 김성재, 주무관 강문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정보접근 및 활용문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IPTV, 영상전화, u-Healthcare 등 미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100Mbps급 광대역가입자망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사업자와 공동투자하여 농어촌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사회통합에 기여토록 하는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을 '1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ICT를 활용한 친환경·고품질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판로확대 및 양질의 교육, 복지혜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최초로 에너지 걱정 덜은 흑산도 심리마을

목포에서도 쾌속선으로 2시간이나 걸리는 흑산도는 한국의 대표적인 섬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다. 한국인이면 누구라도 한번쯤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섬이지만, 실제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정작 불편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것이 난방과 취사를 위한 에너지원 공급이다. 흑산도의 작은 어촌 마을인 심리마을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정책의 수혜로 LPG 소형저장탱크가 주된 에너지원이 되었다고 한다. 이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통해 심리마을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직접 찾아가 보았다.



정책수혜마을
흑산도 심리마을

이장 이광훈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심리길 64

1974년

수혜세대 47가구

신안군청 경제투자과 박성욱
061-240-8266
psw1311@korea.kr



수혜자
지역



정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시점
2014년



지원 금액비율
정부 50% / 지자체 40% / 마을 10%

천사섬의 서해 끝 중심섬, 흑산도

대한민국 지도를 한 번 펼쳐 보았다. 전라남도 목포와 신안의 서해 상으로는 셀 수도 없이 무수히 많은 섬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안군은 섬이 많고 섬의 개수가 1,004개가 된다고 해서 '천사의 섬'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그중에서도 가장 꼬트머리에 있는 흑산면은 10개의 섬이 하나의 군도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섬이 바로 흑산도이다. 목포항에서 배를 타고 가야하는 곳이지만 흑산면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신안군에 속한다.

흑산도는 목포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1
흑산도로 들어가기 위해 하루 4편
운행하는 쾌속선에 탑승하고 있다.

쾌속선으로는 2시간이 걸린다. 흑산도 주위에는 크고 작은 섬이 약 10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섬은,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홍도'가 있다. 그리고 최근 방송을 타서 유명해진 '만재도'도 있다. 만재도는 목포에서 배를 탔을 때 소요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섬이다. 목포여객터미널에서 흑산도를 운항하는 쾌속선은 하루에 4편이 있다. 비수기에는 하루 2~3편 운항할 때도 있고, 파도가 센 겨울에는 한 달에 단 2~3편의 배가 기항하기도 한단다. 실제로 목포항을 출발한 쾌속선이 다물도를 지나 외해로 나가자 화창했던 날임에도 파도가 몹시 거세게 치기 시작했다. 이처럼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어려운 섬인 흑산도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배지로 유명했던 곳이다.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과 최익현 선생이 가장 유명한 인물로 모두 흑산도에 유배되어 흑산도에서 오랜 시간 유배 생활을 하였다.

도서지역 최초 LPG배관망 시범 사업지 된 '흑산도 심리마을'

흑산도에 도착해 흑산도 항구에서 섬을 순환하는 마을버스를 타고 목적지인 심리마을로 가기로 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할아버지 한 분께서 "어떤 방향의 버스를 타도 동일한 시간이 걸린다"며 먼저

"LPG를 도시가스처럼 지하배관으로 연결해 사용함으로써 가스가 떨어질 우려도 없고 비용도 절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

오는 버스를 타라고 알려주셨다. 지도를 보니 흑산도 항은 섬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고, 심리마을은 섬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로도 그럴 것 같았다. 곧 마을버스가 왔는데 대부분의 승객은 섬에 사는 고령의 노인들로 보였다. 버스는 해안선을 따라 나있는 아스팔트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굽이굽이 이어져 있는 길은 강원도의 대관령만큼이나 험준해 보였다. 20여분간 버스는 험준한 골짜기를 몇 번 넘고 2개의 마을을 지나 드디어 목적지인 심리마을에 도착했다. 심리마을에서 내리자 젊은 주민 한 분이 반겨주었는데 알고 보니 심리마을의 이광훈 이장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심리마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도서지방 최초 마을단위 LPG 배관망의 시범사업지로 선정이 되어 올해 3월부터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구수가 조금만 부족했더라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지 못했을 거라며 "참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LPG 저장탱크 보급, 대만족!

LPG 저장탱크가 설치되기 전까지만 해도 심리마을의 주민들은 모두 소형 LPG 용기를 사용해 취사를 했는데 미관상으로도 좋지 못했고 오래된 고무호스로 가스통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안전성에서도 취약했다고 한다. 또한 소형 LPG 용기는 언제 끊길지 모르는데 섬 특성상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받는 것도 쉽지 않아 항상 불안한 마음속에서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난방의 경우에는 등유보일러를 사용

2
지원을 받기 전에는
안전성에 취약한
소형 LPG용기를 사용해왔다.





1
흑산도 심리마을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LPG 용기를 사용해 취사를 하거나 등유를 이용해 난방을 했다.

2
이광훈 심리마을 이장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 참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했었는데 비용도 가스보일러 보다 곱절 이상 비쌌고, 배에서 기름을 내려 리어카에 싣고 운반을 해야 했는데 리어카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직접 들어서 기름통을 운반하는 등 운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또한 툇막고 고장이 났는데, 겨울철에 고장이라도 나면 AS 기사가 육지에서 올 때까지 며칠간 추위에 떨기도 했다고 심리마을 이광훈 이장이 설명을 해주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올해 3월에 심리마을에는 총 사업비 4억 6,800만원이 투입되어 도서지역에서는 최초로 4.9톤의 LPG 저장 탱크가 설치되었고 지하배관을 통한 가스파이프로 47세대에 가스 연결이 완료되었다. 또한 기름보일러도 일제히 가스보일러로 교체가 되었다. 심리마을의 주민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걱정에서는 한시름을 놓았으며 대만족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광훈 이장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LPG 용기를 사용해 취사를 하거나 등유를 이용해 난방을 할 때 불편했던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LPG를 도시가스처럼 지하배관으로 연결해 사용함으로써 가스가 떨어질 우려도 없고 비용도 절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며 앞으로 흑산도의 남은 마을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심리마을의 가스 안전을 위해 지난 3월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 안전 관리자 양성교육까지 이수하였다고 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3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통해 안전하게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있었다면, 2가구가 외지에 있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못해 배관을 설치 할 수가 없어 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단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 LPG 배관 공사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소외 되는 이웃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며 희망사항을 덧붙였다.

농어촌 소외지역 주민 삶의 질을 위한 최고의 사업 이제는 확대되어야 할 때

심리마을의 LPG 수혜 혜택을 취재하러 갔을 때에는 마침 인근 마을도 한창 LPG 소형 탱크 공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광훈 이장은 “안그래도 심리마을에 LPG 소형탱크 설비가 완료된 후에 난방과 취사를 편리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웃 마을에서 모두 부러워 했는데, 이웃 마을도 드디어 그 혜택을 받게 되었다”며 앞으로는 흑산도의 모든 마을로 LPG 소형 탱크 지원 사업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흑산도의 심리마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자원 투입 대비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앞으로 농어촌의 소외 지역 곳곳에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니 도농 간의 에너지 복지의 불균형 해소가 기대된다. 이는 곧 안전하고 편리한 가스 사용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을 큰 폭으로 향상시켜줄 것이다.



시행 후 변화



안전한 연료 사용
* 용기 LPG에 비해 5배 이상의 안전성 확보



편리한 난방과 취사



연료 사용비 절감
* 30~50% 감소

정책 사업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 정책 개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농어촌 주민들은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보다 비싼 연료(LPG용기, 실내등유 등)를 사용하고 있어 도농 간 에너지 사용의 불균형 심화

—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높은 수준의 연료비를 계속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지역 간 형평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LPG 저장탱크 보급 등

도시가스에 준하는 연료사용환경 조성

• 도시가스와 LPG 가격지수 : 100대 165('14.9월 서울시 난방용 기준)

■ 정책 내용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마을단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가스사용 환경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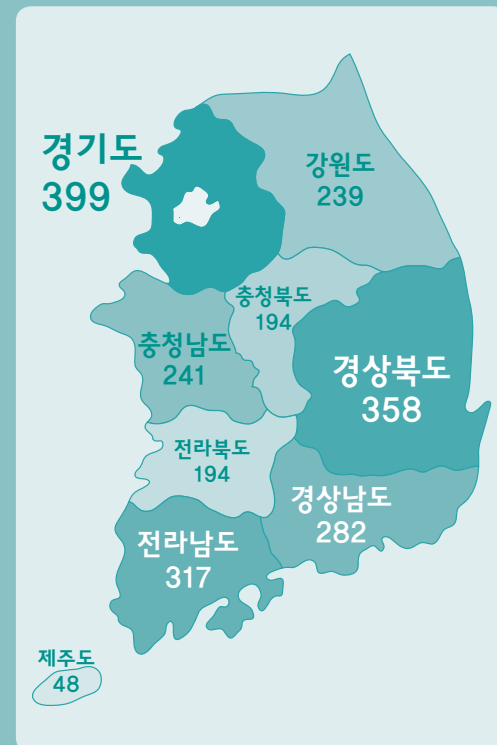
— 마을회관 부지 등 공유지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도로 등을 따라 가스배관망을 지하에 매설

— 각 세대에는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취사와 더불어 난방까지 저렴한 LPG를 사용토록 지원

연도별 LPG 지원세대



2015년 LPG 배관망 지원대상 세대수



■ 주요 성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를 지원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가스사용 환경 구축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14년 예산	'15년 예산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2,700(18개 마을)	7,050(47개 마을)
사회복지시설 지원	4,290(360개소)	4,265(360개소)
군단위 지원 타당성 연구조사	-	300
합 계	6,990	11,615

농어촌 지역에 도시가스 수준의 가스사용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도농 간 에너지 복지의 불균형 해소

— 용기 LPG 및 등유보다 약 30%이상 저렴하게 LPG 공급

• 유통단계 축소(3단계 → 2단계), 공급자 경쟁입찰 선정을 통해 저렴한 LPG 공급

연료간 가격 경쟁력 비교, '15.3월 기준				
구 분	LNG(도시가스)	LPG 용기	등유	마을단위 LPG 배관망
세후 소비자 가격(A)	21.0115원/MJ	1,773.26원/kg	1,215.14원/ℓ	876.7원/kg
전제 : 총발열량(MJ/단위)	43.6	50.4	36.8	50.4
MJ당 가격	21.0115	35.1837	33.0201	17.3948
LNG 대비(%)	100.0	167.4	157.2	82.8

* 자료출처 : 산업부 에너지산업 주요통계(2015.8), 한국LPG산업협회 조사자료

안전하고 편리한 가스사용이 보편화됨으로써 농어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용기 LPG 대비 5배 이상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

— 농어촌 주택 미관 개선, 지역 시공업체 선정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담당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행정사무관 황호준, 주무관 정정식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30~70세대 규모의 농어촌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여 도시가스에 준하는 가스 연료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부지 등 공유지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마을내 도로 등을 따라 가스 배관망을 지하에 매설하여 도시가스와 유사한 가스사용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방식의 연료비가 LPG 용기나 등유를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 30%~50% 저렴한데다, 세대마다 따로 용기를 교체하거나 등유를 넣을 필요가 없어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이 대폭 향상되어 수혜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어냈으며 사업신청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이 LPG 가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가용 마을버스, 산촌마을 주민의 든든한 발이 되다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조교리는 소양강 댐이 조성되면서 갑자기 '육지 속 섬'이 된 마을이다. 더구나 마을에는 운행하는 마을버스도 없어서 자가용이 없는 주민은 그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농촌형 교통모델발굴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조교리 주민들은 자가용 마을버스를 타고 홍천군까지 장을 보러 갈 수 있게 되었다. 농촌형 교통서비스로 인해 오가기 편리해졌다는 조교리마을의 사례를 알아보았다.



정책수혜마을
춘천 조교리마을

- 조교리영농조합법인 대표 황해원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 수혜인구 101명
- 2014년 6월 18일 시행
- 춘천시 교통과 전수연
033-250-3366
jsy6712@korea.kr



수혜자
지역



정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연도 / 기간
2014~2015년 / 2년



지원 금액비율
47%(보조) / 53%(지방)

육지 속 섬마을이 된 조교리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조교리는 60여 가구 1백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비교적 작은 농촌 마을이다. 원래 조교리는 150여 가구가 넘게 살던 비교적 큰 마을이었는데, 1973년 소양강댐 건설로 소양호가 조성되면서 춘천으로 가는 길이 갑자기 끊겨 버린 후에 많은 주민들이 타 도시로 이주를 갔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 마을 이장을 맡았고 현재는 조교리영농조합법인 대표로 있는 황해원 씨 말에 따르면, 댐이 건설된 후로는 주민들은 홍천군 두촌면을 거쳐 춘천에 가거나 더 가까운 홍천군 홍천읍으로 이동해서 볼 일을 봤다고 한다.



1
마을버스 앞에 서서 환히 웃는
조교리 주민들

이는 물론 자가용이 있는 주민에게만 가능한 일이었다. 최근까지만 해도 조교리에는 마을버스가 없어서, 자가용이 없는 주민은 읍내로 가는 이웃 주민의 차를 얻어 타지 못하면 한참을 걸어가 배를 불러 타야 했단다.

배가 여의치 않은 날에는 그저 출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육지에서 2~3시간 떨어진 섬도 아닌데 읍내도 쉽게 못 나가니 그야말로 '육지 속 섬마을'이 따로 없는 것 같다.

조교리에 마을버스가 생겼어요!

읍내 한 번 쉽게 나갈 수 없었던 주민들을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 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먼저 인근 홍천군 두촌면의 원동리까지 들어오는 버스 노선을 연장하려고 시도했다. 춘천시와 홍천군의 협조를 얻어 홍천군 소재 버스회사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결렬 되고 말았다.

결국 춘천시는 조교리마을에서 직접 운영을 해볼 것을 권유했고,

"이젠 장날마다
홍천장까지 데려다주니
얼마나 좋아요.
불과 2~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이제야 비로소 조교리
지키며 살아온 보람이
있네요."

당시 이장이었던 황해원 씨의 주도로 마을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가한 조교리영농조합법인 차원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차량 구입을 해야 했는데, 기존 승용차용 택시는 장날에는 항상 좌석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목록에서 자연스럽게 탈락을 했고, 25인승 버스는 주민 수요와 동절기 기후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적합하지 않아 역시 탈락하였다. 최종적으로 조교리의 마을버스로 낙점된 것은 11인승의 4륜 구동차량이었다.

차량 구입 비용은 2007년 강원도 새농촌건설운동 사업에 공모하여 얻은 기금을 사용해 구입하기로 춘천시를 비롯한 마을 주민과 합의 해서 결정했다. 운수업체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처리는 춘천시의 협조로 해결했고, 마을에서 젊은 주민은 대형면허를 취득하는 등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나갔다.

그리고 2013년 4월, 드디어 조교리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행 하는 하루 3편의 정기마을버스의 운행이 시작되었다.

운행 첫해인 2013년에는 춘천시에서 겨우 마련해 지원한 보조금이 넉넉지 않았던 탓에 유류비용과 보험료, 그리고 기사 인건비 등의 운영자금 문제라는 새로운 난관에도 봉착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에서 추진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2014년부터는 마을버스 운행 덕분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2
마을버스 도입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황해원
조교리영농조합법인 대표





1
마을주민들이 조교리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여보! 마을 버스타고 홍천 시장에 국밥 한 그릇 하러 가요.

마을버스가 운행을 시작하기 이전엔 주민들이 시내에 나가기 위해 서는 마냥 걷거나, 마냥 기다리거나, 마냥 눈치를 봐야 했다고 한다. 첫 번째 방법은 왕복 5~6시간을 걸어서 버스를 탈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 것인데 대부분의 주민이 고령노인이었기에 거의 실행 불가능한 방법이었다.

둘째로는 춘천으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선착장으로 가서 배를 불러 타는 것인데, 선착장이 버스정류장보다는 좀 더 가깝지만 정기 배편이 없어 이 또한 쉽지 않은 방법이었다.

마지막으로는 시내에 나가는 이웃의 차를 얻어타는 것으로, 매번 부탁 하기도 눈치가 보이거나와 날짜와 시간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하루 3편의 정기 마을버스 노선이 생겨 자가용이 없는 주민들도 출타가 굉장히 편해졌다. 운임도 홍천군 두촌면까지 고작 천원이면 탈 수 있는 데다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으로 선정되고부터는 장날에는 홍천시장까지 추가 운행도 가능해져 주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이다.

운행코스 추가도 주민들이 반기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마을버스 운행을 하게 되며 얻은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한다. 주민들에게 천원 씩만 받다 보니 한 달 요금 수입이 평균 20만 원에 불과해 연간 500 만원에 이르는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도 감당이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춘천시, 조교리 마을버스 전국 최우수 선정

일 년 365일 조교리 마을 주민의 발이 되어주고,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된 조교리 마을버스는 결국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았다. 2015년 9월, 농촌형 교통 서비스 모델 중 전국 최우수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춘천 조교리처럼 자가용이 없는 경우 출타가 매우 불편한 농어촌 마을은 부지기수일 것이다. 이번 조교리의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사각 지대에 있는 농촌 주민들의 체감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사례이며, 앞으로 벤치마킹을 통해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례이기에 더욱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시행 후 변화



지속가능한 사업 안정성 확보
* 마을 직접 운행 → 농식품부 보조



홍천장(생활거점)까지 월 6회 연장 운행
하루 3편의 정기 마을버스 노선 신설



정류장 접근 보행시간 단축
* 기존 26.3분 → 현재 4.9분

정책 사업명

농촌형 교통모델발굴사업

- 정책 개요
- 농촌지역은 넓은 면적에 적은 인구가 분산거주하고 있어 읍·면 소재지를 공공서비스 거점지로 육성 필요

 - 배후마을은 중심지 연계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배후마을일수록 대중교통이 취약한 상황으로 버스 운행 중단시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공공서비스 접근 기회가 차단됨
 - 전국 행정리(36천개) 중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이 3,4천개 행정리(9%), 일일 10회 미만 운행 지역이 16천개(43%)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지리적 여건, 인구구조, 통행특성 등을 반영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및 확산 필요

- 정책 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취약 지역에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

 -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주민회 등이 교통서비스 운행계획 수립·운영 주체가 되어 커뮤니티 교통을 제공
 - 선정된 시·군은 2년간 차량유지·보수, 운행손실보상, 유류비 등 교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촌지역 수용응답형 교통사업이 도입,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시행

- 주요 성과
- ’15년 추진실적 : 21개 사업(’14년 13개 사업, ’15년 8개 사업) 선정·지원**

(표준화) 성공사례를 표준화하고, 가이드북 500부를 제작·배포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확산 유도(’15.4월)

(서비스 평가 및 고도화)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점검 및 주민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개선

 - * 선정후사업 착수 기간 : (’14년) 규정 없음 → (’15년) 선정 후 4개월 후
 - * 사업선정 시기 조정 : (’14·’15) 당년도 선정 지원 → (’16년) 사업 전년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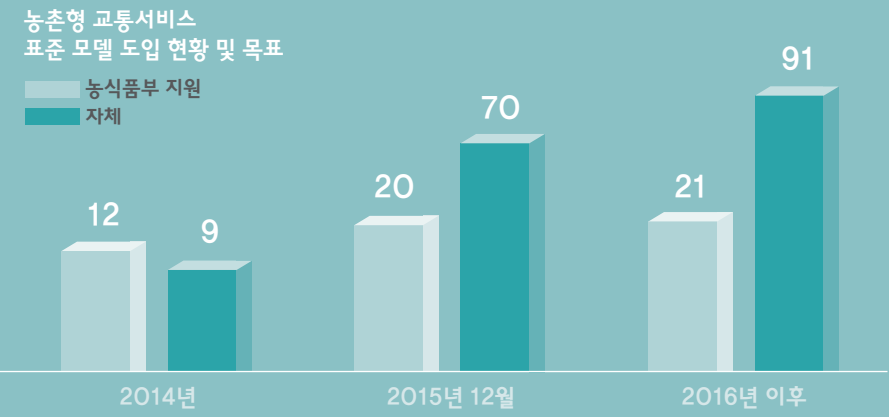
’15년 성과

- (체감성과) 대중교통 부족 등 교통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농촌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이용객의 대중교통 만족도가 41점에서 89점으로 2배 이상 증가

- 월평균 외출횟수는 2배 증가하고, 버스 대기시간은 1/4 수준으로 감소
- 20개 시·군의 416개 마을, 56,424명이 수혜

추진 전후 비교	
과거 (AS-IS)	개선 후 (TO-BE)
· (대중교통 만족도) 41점	· (대중교통 만족도) 89점
· (외출횟수) 이용객당 월평균 4.3회	· (외출횟수) 이용객당 월평균 8.7회
· (정류장 접근 보행시간) 평균 22.1분	· (정류장 접근 보행시간) 평균 5.6분
· (버스 대기시간) 평균 17.1분	· (버스 대기시간) 평균 5.1분
* ’15년 지원 20개시·군 21개 사업모델 대상 모니터링(한국교통대학교, ’15.7~’15.11)	

- (지자체 확산) 농촌형 교통서비스 표준 모델 도입으로 전국 확산
- 농식품부 주관 20개 시·군 지원·육성 외에 70개 시·군으로 확산
- * (’14년) 12개(농식품부지원)/9개(자체) → (’15.12월) 20개/70개 → (’16년 이후) 21개/91개



정책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상호, 주무관 김지순**

“읍·면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3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4년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 13개 사업모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버스형 서비스는 차량구매 및 유지비용, 기사 인건비, 유류비 등을 지원하고, 택시형 서비스는 주민부담금을 제외한 택시요금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통모델이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체적인 노력으로 발굴 및 확산되어 많은 농촌주민이 교통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IV

경제활동 · 일자리

9

농어촌 체험 마을 및 관광
- 해양수산부

10

충남형 6차산업화 두레기업
육성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 충청남도

11

SMART 두레
- 고용노동부 / 경상북도

어촌, 변해야 산다 서중어촌체험마을에 가다

FTA 등으로 인한 어업환경의 변화로 지금의 어촌은 수산업만으로는 점점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때문에 대체 소득원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 전라남도 강진군의 한 어촌마을에서는 어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독특한 생활 환경을 관광 자원화 하여 종합휴양어촌체험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어촌을 활성화하고 어업 외 소득을 발생시키며, 또한 국민에게는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정책수혜마을 강진 서중어촌체험마을

- 이장 강남원
-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까막섬로 75-7
- 2008년 개장
- 어촌 계장(계원 80명)
- 강진군 해양산림과 이영일
061-430-3263
ds2013@korea.kr



수혜자
지역



정부부처
해양수산부



사업연도
2008년도



지원결과
어촌체험마을 1등급 획득

김 양식으로 생계유지하기 급급했던 어촌마을

전라남도 목포에서 남동쪽으로 1시간여 차를 몰자 아름다운 바다가 나타났다. 바로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에 들어온 것이다. 마량면은 강진군에서도 제일 남쪽에 있는 마을로, 삼국시대부터 해상교통이 발달했던 곳이며 장흥, 해남, 영암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했던 지역이다.

조선시대에는 제주에서 말을 이곳까지 싣고 와서 다시 살찌운 다음 서울로 보냈다고 해서 마량이란 지명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마량면의 해안에서는 특산물인 김·미역·꼬막 등이 생산되며, 마량리 앞 바다는 낚시터로 유명하다.

"마을 주민들이 모두 하나같이 잘 단합했기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강진의 대표적인 천연기념물인 까막섬의 상록수림은 바로 이 마량리 앞 바다에 있고, 그 앞쪽으로는 어촌체험마을로 유명한 서중어촌 체험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마을 또한, 예전에는 인근의 다른 어촌마을처럼 김과 미역 양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전형적인 어촌이었는데, 파래가 섞여 품질이 떨어지면서 손을 놓았고, 인근의 농공단지에서 일을 해 생계만 유지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희망을 잃었고, 결국 많은 어업인들이 고향을 떠나기도 했다고 마을의 어촌계장인 강남원 씨가 설명을 해주었다.

평범한 어촌 마을이 '종합휴양어촌체험마을'로 변신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주민들의 위기의식은 결국 서중마을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마을 계장을 비롯한 리더의 지휘에 마을 주민들이 잘 협심해서 따라 준 것도 지금의 서중어촌 체험마을로 변화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어촌 계장인 강남원 씨가

1
천연기념물인 까막섬 바로 앞 수상에 6동의 해상펜션을 건축했다.



2
바지락 체험을 하고있는 체험객들

3
체험프로그램 중 하나인 낚시를 즐기고 있는 참가자

이야기 했다.

먼저 서중마을은 해수부의 '어촌관광활성화사업'의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마을 이름도 아예 서중어촌체험마을로 바꾸었다. 그리고 리더를 중심으로 어촌체험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교육을 들으면서,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수많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주민들 또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현재 서중어촌체험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은 개막이체험, 독살 체험, 자연 김 건조체험, 삼각김밥 만들기 체험 외에도 수상펜션 체험, 낚시체험 등 계절과 시기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시민의 휴양을 위해서는 2층 규모의 펜션도 건축하였고, 천연 기념물인 까막섬 바로 앞의 수상에 1동에 20인도 생활할 수 있는 6동의 해상펜션을 건축하였다. 이 해상펜션이 정말 장관이다. 해상에 떠 있는 것이, 마치 물디브나 피지 등 허니문 지역의 해상 풀빌라가 떠오를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한번 숙박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할 정도로 강진 마량의 아름다운 해상 위에 아름답게 건설되어 있었다. 순간 내년 여름의 피서지로 짐해 볼 요량으로 계장님에게 의견을 밝히자, "성수기에는 예약 마감이 빨리 되니, 서둘러서 예약을 해야 한다"며 팁을 알려주셨다.

다행히도 이런 노력의 결실은 곧 나타났다. 서중어촌체험마을을



1
서중어촌체험마을은 2015년에 전국 최고의 어촌체험 휴양마을에게만 주는 1등급을 획득했다.

2
여름에만 참가할 수 있는 맨손 고기잡이 체험

찾는 관광객은 해마다 증가하였고, 체험을 통한 어가 소득 또한 매년 늘어났다. 또한, 도시로 나간 젊은 주민들이 다시 어촌으로 돌아와 어가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많아진 어촌에는 다시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으며 강남원 계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전국 최고의 어촌체험 · 휴양마을이 된 '서중어촌체험마을'

서중어촌체험마을은 수차례 매스컴에 그 성공사례가 방송되면서 유명해졌고, 현재 타 어촌의 선구자 격으로 조언도 해주고 있다고 한다. 다른 어촌 마을에서 서중어촌체험마을을 배우려고 찾아오기도 한다며 강남원 계장이 웃으며 말했다.

서중어촌체험마을은 그동안의 노력과 결과를 인정받아 2013년도에는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에서 대상을, 그리고 2015년에는 전국

3
서중어촌체험마을 개막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다.

최고의 어촌체험 · 휴양마을에게만 주는 1등급을 획득했다며 강남원 계장이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상패를 보여주었다. 그는 리더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마을 주민들이 모두 하나같이 잘 단합했기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마을 주민들에게 그 공로를 돌렸다.

어촌 변해야 산다. '서중어촌체험마을'이 주는 교훈

지구온난화로 인한 어류 군의 변화, WTO-DDA와 FTA 협상 등의 어업질서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식습관 변화와 인구 감소 등, 어촌은 점점 더 어업만으로는 설 자리가 없게 되어 버렸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 수는 없을 터. 우리나라 어촌에는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전통문화와 독특한 생활환경이 있다.

서중어촌체험마을의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촌만이 보유한 자원을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주민이 합심한다면 어업 외 소득이 발생할 것이고, 다시금 관광객과 젊은 사람들이 찾는 활력 넘치는 어촌으로 변모할 것이다. 어촌의 새로운 도전과 그에 따른 변화가 기대된다.



시행 후 변화



어가인구 증가
*('09) 151명 → ('13) 161명



관광객 증가
*('14) 9,884명



평균소득 증가
*('09) 29,000천원 → ('13) 37,400천원

정책 사업명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정책 개요

어업자원 고갈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의 축소,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며, 인구고령화 및 노동력감소 등으로 경제적 여건 악화

* 어가인구 : ('07년) 221천명 → ('10년) 171천명 → ('14년) 141천명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활성화 도모

- 어촌관광 수요증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로 국민들에게 휴식장소를 제공

정책 내용

WTO-DDA 출범 및 FTA협상 본격 개시 등 어업질서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을 활성화하고, 어촌의 자연경관, 전통문화, 독특한 생활환경을 관광 자원화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어업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추진

- '99. 4. : 어촌체험관광마을 선정육성 방안 수립
- '01. 4. : 어촌체험관광활성화 계획 및 어촌 · 어항관광 리더육성 및 교육방안 수립
- '01 : 어촌체험 시범마을 조성 추진(9개소)
- '05 : 어촌체험마을 홍보, 체험마을 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 '14. 12 : 어촌체험마을 106개소 운영

어촌체험마을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지원

- (평가) 체험마을 등급 결정 및 운영실태 평가
- (홍보) 박람회, 책자, 언론을 이용한 홍보
-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를 통한 체험마을 운영 방법, 경영 문제점 해결 등
- (체험프로그램개발) 각 마을에 맞는 특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 (체험행사지원) 체험객 유치 행사 지원
- (바다해설사 양성) 어촌의 자연, 문화 등을 안내하는 해설사 양성
- (도어교류추진) 어촌체험마을과 학교 및 기업 사이 자매결연을 맺어 도시민 유치 지원
- (사무장채용지원)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 (체험마을고도화) 체험마을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주요 성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어촌체험마을 홍보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내실화 추진으로 체험객 및 체험소득 증가

• 체험객 : ('12)75 → ('13)95 → ('14)88만명, 체험소득: ('12)179 → ('13)228 → ('14) 224억원



어촌관광활성화사업 통해서 체험프로그램 다양화, 어촌체험마을 평가 등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어촌 관광이 활성화 되어 체험객 1인당 매출액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체험객 1인당 매출액 : 20,467원('11년) → 23,875원('12년) → 24,059원('13년)

정책 담당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해양수산사무관 안명호, 주무관金玉화

“침체된 수산업 분야의 대체 소득원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어촌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도시인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 ·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의 삶의 방식과 문화가 도시와 차이가 있어 단절될 수 있는 조건에서 어촌관광을 시작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사는 도시민과 어업인이 서로 이해하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민들의 힐링에 대한 욕구 충족으로 어촌의 자연과 어촌 문화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잘 활용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미녀, 김치에 미래를 걸다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이 작은 시골 마을에는 주민들이 공동 출자를 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두레기업이 있다. 충남의 제1호 두레기업이기도 한 주식회사 '미녀와 김치'는 청양의 고추와 배추를 주원료로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맛 좋고 위생적인 김치를 생산 중이다.

농식품 가공 중심의 6차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충남형 두레기업은 갈수록 심화되는 노령화와 영세농업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농촌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인지 이번 사례를 주목해보자.



정책수혜마을
청양 백곡리마을

- 미녀와 김치 대표 윤지영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백곡길 204-4
- 1988년
- 농업인
- 미녀와 김치
- 20가구



수혜자
특정단체



정부부처 / 지자체
농식품부 / 충청남도



지원연도
2014년



지원/자부담 금액비율
78% / 22%

항공 승무원 포기하고 김치공장 대표 된 윤지영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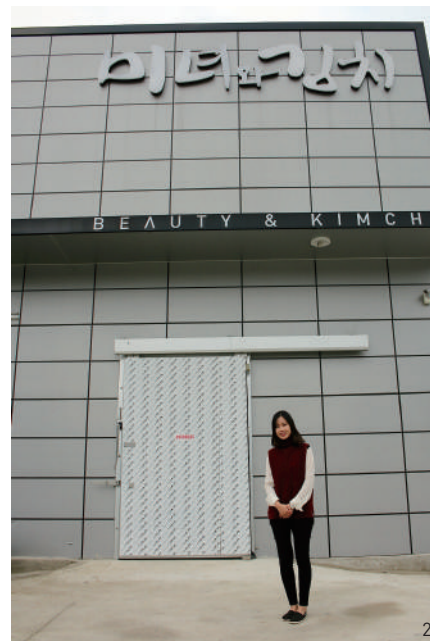
서울에서 차로 두 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충남 청양은 한국인의 슈퍼파워 식재료 중 하나로 꼽히는 '청양고추' 재배지로 유명한 고장이다. 충남 청양군 정산면의 백곡리에 위치한 미녀와 김치 주식회사는 바로 이 청양고추와 배추를 주재료로 맛 좋고 신선한 김치를 생산하는 김치 가공 공장이다. 김치 공장 본 건물 옆에 연식이 제법 될 것 처럼 보이는 허름한 건물에 차를 세우고 내리니, 대여섯 명쯤 되는 아주머니들이 트럭에 올라타 있었는데, 어딘가로 작업을 위해 이동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트럭 운전석에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젊은 미녀 한 명이 앉아있었다. 알고 보니 이 미녀가

“저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서로
믿고 협심을 잘 했기에
지금의 미녀와 김치가
있지 않나 싶어요.”

1
마을 주민들이 밭에서
무를 수확하고 있다.



바로 주식회사 ‘미녀와 김치’의 윤지영 대표(28)였다.
목장갑을 끼고, 장화를 신고 있던 그녀의 첫 모습이 세련된 도시녀 스타일의 첫인상과는 다소 괴리감이 느껴져 순간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한편 무밭에서 허리를 숙이고 열심히 무를 뽑는 현장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니 김치공장 대표로서의 열정과 꿈이 느껴져 고개가 끄덕여졌다. 원래 그녀는 대학에서 관광경영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에는 학과 친구들과처럼 항공사나 호텔에서 승무원이나 호텔리어로서 커리어를 쌓을 생각도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고용되어 직장인으로 일을 하는 것이 별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회사에 입사 원서를 넣지는 않았다고 했다. 대신 창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당시에는 전혀 감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졸업 후 그녀는 어머니가 당시에 구청의 직거래장터에서 김치를 파는 일을 돕게 되었다고 한다. 윤 대표의 부모님은 고향인 청양에서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고추를 뽑는 방앗간을 해왔는데, 방앗간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해서 비수기에는 부업으로 김치를 만들어 구청의 직거래장터에서 김치를 판매한 것이라고 한다. 근데 생각 외로 김치가 무척 잘 팔렸다고 한다. 김치가 잘 팔리는 것을 보고 그녀는 김치장사를 좀



2
윤지영 대표는 대학에서
관광경영학을 전공했지만,
김치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지금의 김치공장을 차리게 되었다.

더 크게 사업화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면 어떨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의 김치공장을 차리게 했던 계기가 되었다며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23명의 마을주민을 설득해 김치공장 설립

주식회사 미녀와 김치는 2012년에 충남의 제1호 두레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 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20가구의 23명의 마을주민이 2억 2천만 원의 자부담을 출자해서 미녀와 김치를 설립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로 국비 8억 원을 지원받아 김치가공 공장을 2013년 11월에 구축 완료해서 시험가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 미녀와 김치는 청양 백곡리의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배추와 고추, 맥문동 등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해서, 농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김치를 생산 2014년 3월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해오고 있다. 바로 이 점이 미녀와 김치가 다른 김치가공 공장과의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출자를 했고,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마을 주민이 직접 만들었기에 두레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농가의 여러 주민이 함께 모여 설립했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 윤지영 대표에게 물어보았더니, 공장 설립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출자를 해야 했기에 두레기업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처음에는 있었다고 한다. 근데 출자를 한 사람들이 모두 협심을 해서 서로 믿고 잘 따라와 주었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레기업보다 더 빨리 법인 설립을 마칠 수 있었다며 그녀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또,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운영하던 방앗간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방앗간은 이웃들이 모이는 곳이라, 농촌 어른들의 뉘두리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어요. 힘든 농사일을 하고도 하루에 4만원 밖에 벌지 못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 분들이 좀 더 편안 환경에서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리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이런

따뜻한 마음이 농촌 주민들에게 통해서 법인 설립이 원만하게 되었던 이유일 것이다.

김치 공장 오픈하고 2달 간 매출액 제로

윤지영 대표는 미녀와 김치가 두레기업 1호로 선정이 되었고, 사업이 정상궤도에 빨리 오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우선 마을 전체가 참여를 했고, 저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서로 믿고 협심을 잘했기에 지금의 미녀와 김치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마을과 계약 재배를 통해 신선한 국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제조 시에는 위생에 가장 신경을 썼어요. 또한, 구기자와 맥문동 등 다이어트나 미용에 효과가 있는 청양의 농산물을 첨가해 프리미엄 김치를 개발하는 등 연구에도 소홀히 하지 않은 점도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녀도 김치가공 공장을 오픈했을 때, 주위에서 많은 우려를 했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고 한다.

“소포장 김치는 레드오션시장이예요. 게다가 사장이 나이가 어리다고 하니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막 열고, 김치를 만들었는데 막상 팔려고 하니 잘 팔리지도 않았어요. 오픈하고 2달 간은 매출액이 제로였단니까요.”

지금도 그녀는 김치 판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고. 현재 김치와 미녀의 김치는 단골 고객의 주문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한다. 윤 대표 부모님의 단골 고객도 적지 않고, 윤 대표 본인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단골 고객이 꽤 늘어났다고 한다.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도, 단골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현재는 김치를 담그지 않고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소량 주문하는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해서 인터넷 쇼핑물을 통한 주문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 홍보 담당은 동생이 직접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한다.

1
'미녀와 김치'는 마을과 계약 재배를 통해 신선한 국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2, 3
구기자와 맥문동 등 다이어트나 미용에 효과가 있는 농산물을 첨가해 프리미엄 김치를 개발하고 있다.

김치 체험장 조성으로 부자 농촌 꿈꾸는 젊은 여사장

미녀와 김치는 청양군의 농산물과 노동력을 활용해서 김치를 가공하는 6차산업기업이다. 향후 윤지영 대표는 제조업 외에 김치에 대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김치 체험장 조성을 하고 싶다고 했다. 김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김치를 알리고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김치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내비쳤다. 현재 김치가공 공장을 통해 농가의 농작물이 안정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근로 등을 통해 소폭의 소득 증대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김치 체험 서비스업을 통해 이웃 농가 소득원을 증대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있는 고향에 내려와 김치에 미래를 건 젊은 여사장의 도전을 기대해 본다.

시행 후 변화



고정적인 소득 창출

* 1농가당 년 200~300만원
(‘14) 0.5억원 → (‘15) 1.2억원



일자리 창출

* 70대 이상 고령주민 9명 고용
(‘14) 7명 → (‘15) 9명



마을 농산물 우선 구매

정책 사업명

충남형 6차산업화 두레기업 육성 사업

정책 개요

3농혁신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계획적인 육성관리를 통하여 6차산업화를 촉진하고 농어촌산업기반조성을 목적으로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 중점시책 추진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물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이 융복합된 농식품 가공 중심의 6차산업화 마을기업 창업을 지원함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6차산업화),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 경제활동 다각화

⇒ '18년까지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 56개소

정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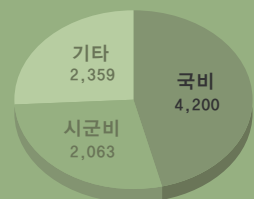
2012년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사업과 함께 지역 내에서 생산과 가공 및 소비촉진을 이루어 성공적인 6차산업 모델 구축을 위해 도비와 시·군비 10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6개의 소규모 마을단위 두레기업 창업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증대와 마을 공동체 일자리 창출

①금산 매현마을 ②금산 바리실마을 ③서천 봉하마을 ④태안 갈두천마을
⑤보령 미산리 동달이영농조합법인 ⑥공주 산성 자연애 밤토랑마을

2012년 6차산업화 마을기업 창업시범사업을 기반으로 2013년에 “충남 농어업 6차산업화 확대·발전계획”을 수립하고 道가 주도하는 농어촌융복합산업화사업* 계획을 농식품부로부터 승인받아 광특 501억원을 포함 총 1,001억원의 사업비 확보

* 정부가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설치한 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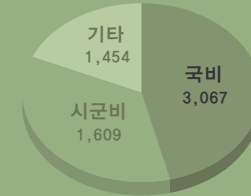
2013년 공모를 통해 마을단위 두레기업 창업 7개소, 우량기업 4개소 육성으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경쟁력 강화



두레기업 : ①청양 미녀와김치 ②논산 진발우주
③공주 밤들이 ④아산제이에스 ⑤청양 동방
⑥서천 가양희망 ⑦홍성 김노리

우량기업 : ⑧논산 맛가마 ⑨논산 하늘땅
⑩청양 칠갑산어머니 ⑪금산 청정인삼

2014년 마을단위 두레기업 6개소 창업, 지역 농식품 우량기업 2개소 선정하여 사업 추진



두레기업 : ①서천 희리산청미래 ②청양 구기토
③금산 베리굿파머스 ④논산 솔향
⑤금산 자연바라기 ⑥보령 늘해랑

우량기업 : ⑦아산 은강비전 ⑧천안 유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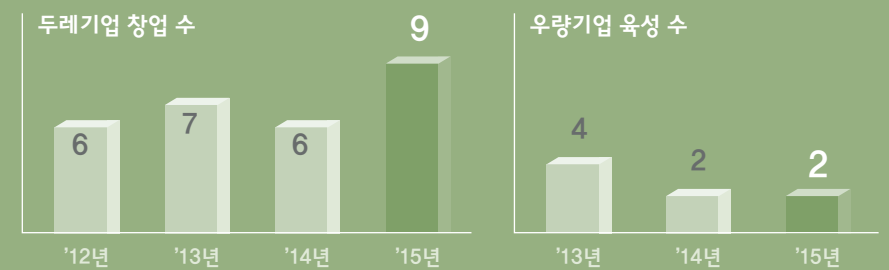
— 농업6차산업화 포럼, 사업설명회 및 컨설팅, 6차산업화 모니터링 및 멘토링 등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 지원으로 농촌 현장의 역량 강화와 혁신적인 변화 유도

주요 성과

'12년부터 '15년까지 두레기업 28개소 창업, 우량기업 8개소 육성

— 두레 : '12년 6개소, '13년 7개소, '14년 6개소, '15년 9개소 창업

— 우량 : '13년 4개소, '14년 2개소, '15년 2개소 육성



충남 두레기업 창업 및 매출·고용 등 지역경제에 기여

— 두레 : '14년 기준(8개소 운영) 매출액 47억원, 일자리 창출 43명

— 우량 : '14년 기준(6개소) 매출액 97억원 전년대비 37% 증가

1, 2, 3차 산업의 융복합으로 지역공동체 의식 회복과 지속적인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도모

정책 담당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김현국, 주무관 박유석





“농촌 지역의 대표 농작물과 농촌자원을 이용하여 가공산업을 바탕으로 유통·문화·관광 서비스 등이 융복합된 주민이 직접 출자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농식품 마을기업(두레기업) 창업 사업입니다. 2012년도 자체사업으로 3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으로 시작하여 2013년도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를 10억원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9억원을 투입하여 28개 두레기업 창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관련된 유통 관광 맛집 등의 사업을 통하여 주민 소득과 고용창출을 높이고 있어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농 연계형 일자리 지원 사업 ‘SMART 두레’

감으로 유명한 경상북도 청도에서 감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인을 만나보았다. 그는 8년 전부터 청도의 반시를 가공해서 쫄깃하고 달콤한 감말랭이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이는 과일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형 산업이다. 그의 감 가공공장에는 경북 도시의 근로자들이 도농 연계형 일자리 지원 사업인 ‘SMART 두레’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구인난을 겪는 농가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동시에 도시의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정책수혜마을
청도 온막리마을

-  이장 이승천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 672번지
-  2007년 운영시작
-  스마트두레사업단
안상진



수혜자
지역



정부부처 / 지자체
고용노동부 / 경상북도



시행연도
2014년



수혜인원
주민 14명

구인난이 최대 문제인 농가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 이곳은 매년 가을이 되면 온 마을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씨 없는 감, 청도 반시 등으로 유명한 청도군에서도 매전면은 감을 재배하기에 좋은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8년 전부터 이곳에서 감을 가공해 쫄깃쫄깃하고 달콤한 감말랭이를 생산하는 이승천 대표를 만났다.

그는 점점 사람들이 감을 잘 먹지 않고 감 자체를 팔아서선 이윤이 별로 남지 않는 것에 회의를 느껴, 8년 전부터 감을 가공해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감말랭이로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고 한다.

수익이 어느 정도 오르기 시작했지만 그에게는 항상 고민되는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그건 바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농촌에 있다 보니 인력을 구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다고 했다.

“감 수확철이 되면 농가의 고령 노인분들을 임시직으로 고용해 보기도 했지만, 어떤 때에는 먼 이웃 마을까지 알아봐야 할 정도로 인력 수급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마침, 경북의 3개 군(경산, 영천, 청도)에서 도시의 취약 계층을 농업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한 후에 농가로 직업 연결을 해주는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도시에서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도시 취약계층

이승천 대표의 감 가공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시규 씨(58세)는 대구 경산에 살고 있는 도시민으로, 작년 10월 은퇴를 하고 귀농 준비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농촌에 아는 지인도 없고, 마땅한 농업 기술도 없어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 하는 격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길가에서 귀농과 관련한 현수막을 보고서는 경산의 사무실을 찾았고, 그곳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이곳 감 가공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벌써 이곳에서 근무한지 만 1년이 되었다는 김시규 씨는 귀농 기술도 익힐 수 있고, 매월 2백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벌 수 있어 하루하루

1
근무한지 만 1년이 된 김시규 씨는 은퇴 후에 귀농을 준비하기 위해 SMART 두레 사업에 지원했다.

2
이승천 대표는 SMART 두레 사업을 통해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3
여성 근로자들 모두 농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일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며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김시규 씨는 이곳 감 가공농장에서 자신만 은퇴 후에 귀농을 준비하기 위해 SMART 두레 사업에 지원을 한 반면, 나머지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자신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여성 근로자들은 대부분 대구 경산과 군위에서 왔는데, 도시에서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선호해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마침 나라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농가로 취업도 시켜준다고 해서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김시규 씨는 함께 일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모두 농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모두 만족도가 높다고 귀띔도 해주었다.

농촌과 도시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해준 SMART 두레

위에서 사례로 든 청도의 감 가공공장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은 ‘구인난’이 최대 걱정이고, 도시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구직난’이 최대 근심거리이다. 이처럼 농촌과 도시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한 원인은 농촌 입장에서 기술이 갖추어졌고 적정선의 임금으로 구할 수 있는 마땅한 인력을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 도시에서는



농가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힐 곳도 마땅치 않을 뿐더러 농촌으로 출퇴근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양 쪽의 문제를 해결해서 도농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경상북도 SMART 두레이다. SMART 두레는 즉, 구인난을 겪는 농가와 도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도농연계형 일자리 지원 사업인 것이다.

SMART 두레는 먼저 취업을 원하는 도시의 취약계층을 위해 농촌에서 필요한 농업 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농촌으로 출퇴근 하는 것도 차량 지원으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 시켜주었다. 교육을 이수한 도시민들을 위해서는 농촌에 있는 농가나 공장으로 일자리를 연결도 해주었다.

구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는 SMART 두레의 도움을 받아 쉽게 인력을 필요할 때 수급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미 농업 교육도 이수했기에 별도의 교육도 필요하지 않았다.

다만, SMART 두레 초년 도에는 취업자들을 위해 하루에 5천원의 상품권 지원이 되었으나, 이듬해에 지원이 끊겨 농가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으며 감 가공공장 이승천 대표는 “앞으로

1
SMART 두레를 통해 일자리를 얻게 된 근무자들이 즐겁게 일하고 있다.



2
이승천 대표의 감 가공농장에서 생산한 감말랭이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실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일거양득의 SMART 두레, 이제는 전국에서 시행되길

청도의 감 가공공장을 방문했을 때가 마침 점심시간이었는데, ‘시골 인심이 좋다’고 대표님과 직원분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해서 함께 식탁에 앉아 점심을 먹게 되었다.

동료들과 함께 오전 작업 후 점심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직원들의 표정에서는 하나같이 즐거움이 가득 느껴졌다.

그들에게 도시에도 일자리가 많은데 왜 농촌에서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도시에서는 자기들처럼 나이 많은 여직원들은 잘 안 뽑아준다고 했다.

국가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출퇴근 버스까지 지원해 주는 SMART 두레 때문에 매달 안정적으로 소득도 올리고, 땀 흘리며 일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며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는 그들의 표정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도농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는 비단 위에서 사례로 든 경상북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전국 각지로 확대되어, 농가에서는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민들은 땀 흘리고 일하는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본다.

경북 SMART 두레 시행 후 변화



농가
부족한 일손 문제 해결



도시민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참여농가 250호, 일자리 참여 500명 이상
* 두레장터 월 방문객 4,000명

정책 사업명

경상북도 SMART 두레 사업

정책 개요

구인난을 겪는 농가와 도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도농연계형 일자리 지원 사업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도시 유휴 근로 취약계층을 파견하는 도농 일자리 연계지원 프로그램

로컬푸드를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개척 지원

- 도시와 농촌이 행복한 삶의 공간으로 공존할 수 있게 지역공동체 부활 및 유기적인 도농 상생의 순환사회 구축
- 도시부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과 농촌인력 부족의 해소를 도모하는 협력적인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
- 로컬푸드 농산물을 도시 내 직매장을 통해 농촌에서 도시로 순환
경상북도는 농가 수 195천여 가구로 전국 17.1%(전국 1위)를 차지하는 전형적 農道로서 농업부문의 일자리 발굴을 통한 고용증대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해부터 역점시책사업으로 경산 · 영천 · 청도 등 3개 지역을 대상 시범운영하고 금년도 군위군을 추가하여 4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도농 상생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 『경상북도 스마트(Smart) 두레 공동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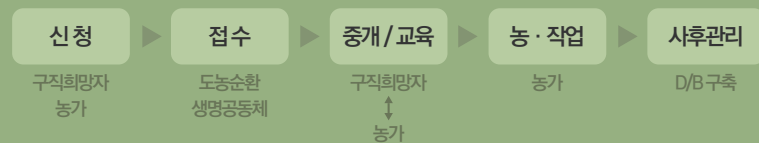
정책 내용

- 고용노동부 지역발전형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에서 추진
* ('14) 5.5억 → ('14) 5.2억원(국비 80%, 지자체 20%)

도농 간 일자리 연계지원(일손부족농가 ↔ 도시 취약 근로 계층)

- 도시민 및 농가의 방문, 전화, 방문단위농협의 농촌 고용네트워크를 활용

구인 · 구직 일자리 연계지원 흐름도



- 2014~2015년 농가 250호, 일자리참여 500명 이상



농가
250호



일자리 참여
500명 ↑

- 2014~2015년 두레장터 월 방문객 4,000명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도움(참여자 중 여성 60% 이상, 60대 이상 51%)



여성
60% 이상



60대 이상
51%

구인·구직 일자리 중개 시스템 “스마트폰 앱 개발 구축”(20백만원)

- “스마트폰 앱”으로 구인 · 구직 연결, 농산물 온라인판매 기능 추가
※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 3.0박람회('15. 4. 30, 서울 COEX)참가, 앱 구동 시연

직거래 ‘두레장터’를 운영, 참여농가의 판로개척 지원

주요 성과

지역 6차산업육성과 연계하여 농식품 가공인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도·농 일자리 교류 확대 추진

도농 간 상호이해와 상생발전의 새로운 일자리창출 모델 제시

- 기존 민간인력센터와는 차별화된 개념으로 접근 지역공동체부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정책 추진으로 정책 만족도 제고

- 피부에 와 닿는 정책지원으로 도민 만족도와 민관 소통활성화 기여

두레공동체 사업성으로 안정적 인력 수급시스템 구축 토대 마련

- “농어업인력지원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중

정책 담당 경상북도 일자리창출단 행정사무관 김종태, 주무관 우병선

“경상북도의 농가 수는 195,108가구로 전국의 17.1%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인력수급문제와 지역 중소농들의 농산물 판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산-영천-청도-군위를 대상으로 실행한 광역적 도농순환일자리(인력순환)를 통해 고령화와 노동 양극화로 인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부족과 근로 빈곤층의 취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매장(두레장터)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생산물순환)를 마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안정적 판로확보 및 지역경제 순환체계 구축했습니다.”



V

문화 · 여가

12

작은 영화관 건립
- 문화체육관광부

강화 주민의 문화 명소가 된 작은 영화관

인천광역시의 관광명소인 강화군. 그러나 강화에는 그동안 극장이 없어 주민들은 인근지역에 비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올해 초 강화에 새로 생긴 '작은 영화관'은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건립된 소규모 상설 상영관이다. 이번 작은 영화관 건립은 그동안 극장 부재로 영화를 관람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여가문화의 장소를 제공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정책수혜지역
강화군

-  안지현(수혜자)
-  공무원
-  30,542 세대
-  59가구
-  인천광역시 김민교
032-440-3994
greenstarkim@korea.kr



수혜자
지역



정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연도 및 기간
2014년 / 1년



지원 금액 비율
국비 50% / 지방비 50%

강화주민 영화 한 편 보기 위해 차량으로 1시간 이동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 활동으로 1위가 영화보기(41.4%)이고, 2위가 해외여행(31.4%)이라고 한다. 무려, 과반수에 가까운 압도적 비율로 영화보기를 손꼽은 데에는 비용이 적게 들고, 극장에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 인천광역시 강화도에는 최신 개봉 영화 관람을 즐길 수 있는 극장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강화군의 지리적인 위치와 인구수, 그리고 최근 영화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을 고려해 보면 다소 의외의 사실이다.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한은열 과장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1
감각적으로 꾸며진 작은 영화관의
상영관 입구

“1990년대 초까지 강화극장이 있었는데 경영사정으로 폐관을 했어요. 그리고 멀티플렉스 극장은 인구가 적은 강화군에서는 기대수익률이 낮아 건립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화군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웃 도시인 일산과 김포로 영화관람을 위해 원정을 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내했다고 한다. 그러나 말이 이웃 도시지, 편도 20-30km를 이동해야 한단다.

“강화에 사는 회사원들을 예로 들어보죠, 6시에 칼퇴근해서 김포나 일산으로 이동하는데 1시간이 걸리고, 영화 보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 11시가 넘어요. 저녁도 먹어야 하고요. 왕복 기름값도 무시 못하고요.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낭비가 아닐 수 없죠.”

작은 영화관 건립 지원은 이렇게 강화군과 같이 극장이 없는 농촌지역 등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개봉하는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소규모 상설 상영관을 건립하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지원규모는 1개소당 5억 원의 국비(지특회계)이며, 이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규모와 소요예산이 조정 가능하다. 단, 국비 지원 시 지방비 50% 이상 매칭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건물 리모델링 등 상영관의 구축비용과 영사기 등의 기자재 구입비용과 영화관의 컨설팅을 포함한다.

현재, 인천 강화 등 전국적으로 16개소가 운영 중인데, 지자체별로 극장의 이름은 모두 다르다.

“그 동안 강화는 극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문화적 소외감도 적지 않게 느꼈는데, 그분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 주었던 게 통한 것 같습니다.”

2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강화군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강화 작은 영화관 영화 1편에 단 돈 5천원

강화 작은 영화관은 강화군청과 가까운 시내에 위치해 있다. 대중 교통도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아 강화 시내에서 걸어오는 분들도 많다고 한다. 2015년 2월 개관한 작은 영화관은 1개의 상영관에 총 87석의 관람석이 있고, 대도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상응하는 수준의 스크린과 음향 설비를 갖추고 있다.

영화 관람료는 2D 영화인 경우는 5천원, 3D 영화인 경우에는 8천원을 받고 있어, 인근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매표소 겸 매점에서는 팝콘 또한 사먹을 수가 있는데, 가격이 무척 저렴하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는 팝콘 한 개가 영화 관람료에 육박하는데 비해서, 강화 작은 영화관의 팝콘은 대형 극장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현재 강화 작은 영화관을 비롯한 지방의 소규모 상설 영화관의 경우 개인정보 보안 문제로 인해 인터넷 예약 홈페이지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인터파크에서 수수료 대행료 5백 원(매수 당)을 지불하면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평일에 한해서는 전화 예약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주말은 예약 후, 극장에 안 오는 손님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전화 예약은 받지 않는 중이다.

작은 영화관의 현재 좌석 점유율은 약 26%로, 인근의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비교해서 절대 낮지 않은 편이다. 강화군청 문화관광과의 한은열 과장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소규모 영화관 중에서는 흥천의 극장과 좌석 점유율 1, 2위를 놓고 매번 다툰다고 한다.

작은 영화관을 찾는 주 관람층은 강화군의 지역적 특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과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얼마 전에는 강화의 한 군부대원이 단체로 영화 ‘연평대전’을 관람했다고 한다.

또한, 여행 목적으로 강화군을 찾은 외지인들까지 작은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인근 대도시인 김포나 일산에서도



1 작은 영화관에서는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2 장은미 매니저는 강화군민에게 영화관람의 기회를 넓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강화 작은 영화관으로 영화 관람을 위해 원정을 오는 경우도 있더니, 강화 작은 영화관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작은 영화관 성공의 이유

좌석 점유율 26%, 개관 1달 만에 흑자 달성, 외지인까지 영화를 보기 위해 찾는 강화 작은 영화관은 시작부터 결과가 참 좋다. 그 이유를, 비영리 법인인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의 강화 매니저인 장은미 씨에게 물어보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도시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상응하는 시설을 갖추었음에도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한, 상영하는 영화가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와 동일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동안 강화는 극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문화적 소외감도 적지 않게 느꼈는데, 그분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 주었던 게 통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평일에는 전화예약을 받아 주는 등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한 점도 성공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취재를 위해 작은 영화관을 찾은 평일 오전, 마침 영화를 보기 위해

3 한 개의 상영관에 관람석 87석이 갖추어져 있다.

온 강화군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동안 강화군에는 극장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동네에서 저렴한 가격에 최신 영화를 시설 좋은 곳에서 볼 수 있다며 좋아했다.

기타 성공 이유로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한은열 과장은 강화사랑 상품권을 추가하고 싶다고 했다. 강화군의 공무원이라면 의무적으로 강화사랑상품권을 월급의 일부로 지급받는데, 이 상품권으로도 작은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작은 영화관의 성공이 시사하는 점

강화 작은 영화관의 성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과 연령을 불문하고 영화 관람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항상 존재하며, 그 크기 또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대도시와 비교 인구가 적고, 노인층이 많은 것 등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접근성, 가격 경쟁력 그리고 좋은 시설과 최신 영화 등의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강화의 작은 영화관처럼 문화적인 면에서 소외를 받았던 지역의 훌륭한 문화 예술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며, 이는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앞으로 강화의 작은 영화관과 같은 지역 문화 예술 공간이 문화소외지역에 더 많이 생겨나길 기대해본다.

시행 후 변화



여가문화 생활 개선
* 전국 : ('10) 1개소 → ('15) 18개소



영화 관람 이동 비용 절감
* 이동시간 : 왕복 3시간 → 왕복 30분 이내
관람비용 : 4인 20만원 → 4인 2.5만원(교통비 포함)



지역 주민의 문화자긍심 고취
* 평균 좌석점유율 28%
전국 작은 영화관 중 관객 수 2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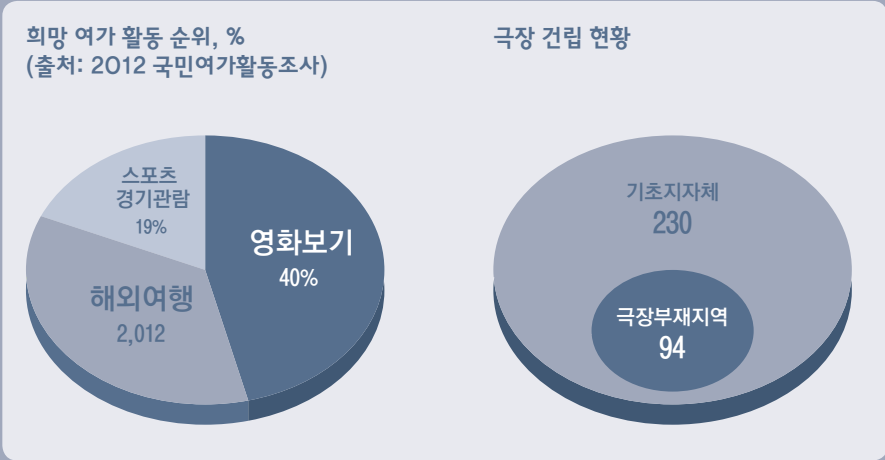
정책 사업명

작은 영화관 건립 지원

■ 정책 개요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 개봉하는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소규모 상설 상영관(연중 상영) 건립

— 영화관람을 여가활동 중 가장 선호하고 있으나, 인구가 적은 지역은 기대수익률이 낮아 대형 영화관 건립이 어려움



■ 정책 내용

활용도가 낮은 지역 문예회관, 청소년 수련관 등 유휴시설 리모델링 방안을 우선 고려하여 예산 절감 유도

건물 리모델링 등 상영관 구축 비용 및 영사기 등 기자재 구입비용

작은 영화관 건립 · 운영 컨설팅 지원

— 적정 시설규모, 운영방식, 지역 기업 및 문화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 자문

— 배급 활성화 지원 (공동배급협의회 운영 등)

■ 주요 성과

농촌지역 등 문화소외지역에서 지역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최신영화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

— (현황) 전북 장수 등 16개소 운영 중이며, '15년 말까지 18개소 개관 예정(총 29개소-문체부 17, 지자체 12)

건전하고 유익한 여가문화 생활여건 조성 및 전국 동시 개봉작 상영으로 지역주민의 문화 자긍심 고취

'작은 영화관' 개관 현황

구분	개관일	영화관명	위치	홈페이지 주소
1	2010.10.10	한누리시네마	전북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03 한누리전당내 가람관 1층	hannuri.scinema.org
2	2013.09.05	울망출망 지평선시네마	전북 김제시 도작로 224-32 청소년수련관 1층	cinema.gimje.go.kr
3	2013.09.10	임실한마당 작은별영화관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03 군민회관 지하1층	imsil.scinema.org
4	2014.04.01	홍천시네마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중앙로 11-8	hongcheon.scinema.org
5	2014.04.16	동리시네마	전북 고창군 고창읍 판소리길 20 동리국악당 지하1층	www.gochang.go.kr
6	2014.06.24	무주 산골영화관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17 무주예천문화관 2층	muju.scinema.org
7	2014.08.20	부안 마실영화관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예술회관길 11 예술회관 1층	masil.scinema.org
8	2014.10.08	완주 휴시네마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94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wanjumovie.kr
9	2014.12.20	화천군 작은 영화관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2길25-10, 2층	ihc.scinema.org
10	2015.02.06	강화 작은 영화관	인천 강화군 고비고개로19번길 12, 강화문예회관 2층	ganghwa.scinema.org
11	2015.07.27	진안 마이골 작은 영화관	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성길 3	jinan.scinema.org
12	2015.08.13	영월시네마	강원 영월군 영월읍 관풍헌길 66	yw.scinema.org
13	2015.10.08	알프스시네마	울산 울주군 상북면 알프스온천5길103-8 산악문화센터 1층	ynawc.ulju.ulsan.kr
14	2015.10.19	정남진시네마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43 장흥국민체육센터 4층	jangheung.scinema.org
15	2015.10.26	순창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로 83	sunchang.scinema.org
16	2015.12.4	기벌포영화관(서천)	충남 서천군 장항읍 145번길 30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 소풍+3층	mediasp.kr

※ '15.12월 2개소(평창, 고령) 개관 예정

정책 담당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행정사무관 손미숙, 주무관 김하정

“2014년 영화 관람객 수가 2년 연속 2억 명을 돌파하였으나, 230개 기초지자체 중 극장 부재 지역이 94개에 달합니다. 영화 관람을 여가활동 중 가장 선호*하고 있으나, 인구가 적은 지역은 기대수익률이 낮아 대형 영화관 건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극장 없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전국 동시 개봉하는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소규모 상설 상영관(연중 상영)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적은 장수군 작은 영화관의 경우 관람객이 지속 증가하여 연간 관람객이 전체 인구의 2배에 육박하는 등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큼니다.”



VI

환경 · 경 관

13

주민주도형 도량 살리기

- 환경부 / 충청남도

14

국가농업유산 지정 및 유산자원
활용사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

‘옛 추억의 도랑이 되돌아오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 살리기

70년대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 마을 곳곳에는 아름다운 물이 흐르는 도랑이 있었다. 아이들은 도랑을 놀이터 삼아 가재를 잡고 물장구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런 추억의 장소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도랑은 산업화에 따른 폐수와 농촌 쓰레기 등으로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황폐지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충남의 한 마을에 옛 추억의 도랑이 되돌아와서 화제가 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을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옛 도랑을 살려냈다는 것이다. 옛 추억의 장소였던 도랑이 어떻게 다시 예전 모습 그대로 되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 과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정책수혜지역
아산 원공솔마을

- 이장 김동빈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길 120-5
- 1966년
- 농업인
- 42가구
- 아산시 환경보전과 김재경
041-540-2749



수혜자
지역



정부부처 / 지자체
환경부 / 충청남도



지원연도
2014년 / 1년



지원 / 자부담 금액 비율
75% / 25%

빠름과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

서울역에서 KTX를 타자마자 스마트폰에 미리 다운로드 해놓은 드라마 한 편을 재생시켰다. 그런데 싱겁게도 한 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천안·아산역에 곧 도착한다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새삼 세상이 참 편리해졌고, 모든 것이 빨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아산역에서 차를 타고 20여분을 달리자 대형 규모의 공장이 보였는데, 그 공장 건물에는 ‘삼성전자’라고 크게 적혀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삼성 반도체 공장이었다.

공장 뒤편으로는 논과 임야가 쭉 펼쳐져있는 것이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1리에 있는 이번 사례의 마을이 바로 이곳에 위치한 농촌 마을 중 한 곳이다. 이 마을은 56 세대수, 116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로, 조선시대에 관아의 경비로 쓰는 공수전이 있었다 하여 공수리라고 불린다고 마을 이장인 김동빈 씨가 설명을 해주었다.

공수리는 예전의 마을이 다 그랬던 것처럼 마을 앞의 도랑에는 실개천이 흘렀고, 아이들은 이곳에서 가재를 잡고 물장구를 치며 놀았다고 한다. 그런데 산업화와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공업 폐수와 생활폐수 등으로 오염되어 예전의 아름다운 실개천은 서서히 자취를 감췄고, 언젠가부터 도랑은 악취가 풍기고 쓰레기로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장소가 되었다고 한다.

순간 이 마을에 오기 위해 탔던 KTX가 생각났다. 현재의 빠름과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과거의 여유로움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추억’으로 하나가 된 주민들

공수1리 이장인 김동빈 씨에 따르면, 도랑이 오염된 것은 도랑 그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욕마저 꺾어놓았다고 했다. 무슨 일을 시작도 해보기 전에, “해봤자 헛수고야”, “그걸 뭐 하러 해” 등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한다.

1
공수1리 주민 모두가 실개천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
공수1리 주민들이 되살린 실개천으로 안내하는 표지판

그러던 중에, 김동빈 씨는 마을 어르신들이 술을 마시며 하는 말을 우연히 듣고는 도랑을 살려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 저 도랑에서 가재도 잡고, 맥도 감고 했는데, 그때는 물이 참 깨끗했었어. 그때가 참 그리운데, 죽기 전에 다시 그런 도랑은 보기 힘들 것 같아” 그는 어르신들의 이런 옛 추억을 그리워 하는 말을 듣고는 마을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기 시작했다. 마침 아산시에서도 도랑 살리기를 위한 정책 지원금 3천만 원을 지원 받게 되어, 마을 자부담금 천만 원도 더해져 공수리의 도랑을 되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에 딱 보이는 결과가 없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이번엔 정말 한 번 해보자.”라는 의기투합으로 마을 주민들이 하나로 뭉쳐 도랑 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를 했다고 한다. 공수1리 마을 주민에게는 천군만마의 지원병도 있었다. 인근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연락이 와서, 마을의 도랑을 살리는데 자신들이 도와줄 일 없는지 물어왔다고 한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사회공헌팀이 마을에 벽화를 그려주기도 하고, 도랑 복원 작업에도 지원 인력을 보내주었다고 한다.

“우리 모두는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유산을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재가 돌아오다’ 옛 모습을 되찾은 도랑

정책 지원금, 인근 회사의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 주민이 스스로 하나가 되어 도랑을 복원하겠다는 마음과 노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도랑의 수질이 개선되었고, 도랑에는 가재와 다슬기 등 수생 동식물이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그 결과 도랑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도 모두 없어졌다.

이렇게 도랑이 깨끗해지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는 공수1리의 도랑으로 체험학습을 나오기 시작했고, 여름 휴가철에는 도시민들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공수1리에 찾아오기도 했다고 한다. 마을에는 다시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고, 마을 주민들도 “이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의욕이 생겼다고 한다.

도랑뿐만 아니라 공수1리 주민들은 마을의 공동우물도 복원을 했다. 원샘이라고 하는 이 마을 공동 우물은 매년 정월 초사흘에 한 해 동안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낼 때 정제수로 사용하기도 했단다. 도랑처럼 오염되어 언젠가부터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복원작업을 통해 예전 모습 그대로 깨끗한 우물로 복원이 되었다.

1
공수1리 주민들은 마을의
공동우물도 복원을 했다.

2
도랑에는 가재와 다슬기 등 수생
동식물이 살고 있다.



3
도랑 살리기가 성공한 이유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모든 공을 주민들에게 돌린
김동빈 공수1리 이장

김동빈 씨는 생수와 복원된 공동우물물의 수질을 비교해봤는데, 공동우물물이 생수보다 몇 십 배나 깨끗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도랑 살리기’를 토대로 우리 강산 푸르게!

공수1리의 도랑 살리기가 성공한 이유는 먼저 민과 관이 협력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와 인근 기업체에서 주민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했고, 환경 보전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도랑 살리기가 성공하게 된 것은, 공수1리 마을 주민들 본인 스스로가 주도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이끌었기 때문이 아닐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좀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옛 추억의 장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와 실행력이 도랑을 살려낸 것이다.

공수1리 주민들은 말한다. “우리 모두는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전통 문화유산을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공수1리 주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싶다. 이번 도랑 살리기를 귀감으로 삼아, 우리 모두는 맑고 깨끗한 우리 강산을 보전하고 가꾸어 후대에 잘 물려줘야 할 것이다.

시행 후 변화



수생 동식물 복원



주민 환경의식 고취



주민 화합 및
마을 공동체 의식 회복

정책 사업명 (환경부) 주민 참여형 마을 도랑 살리기

■ 정책 개요 도랑은 지하수, 하천, 강 등 다른 수생태계로 이어지므로, 물길의 발원지인 도랑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하천과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 도모

■ 정책 내용 도랑 살리기 신규사업
— 수질정화를 위한 생태둑방 조성, 오염물질 유입 차단 사업 및 소규모 습지조성 등 기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 오염 퇴적물 및 방치된 가축분뇨, 생활폐기물 등의 수거 · 처리
— 도랑 정화식물 식재 및 수생태계 유지 ·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주민 환경교육

도랑 살리기 사후관리사업

— 지역주민 대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캠페인 전개로 자발적 주민참여형 도랑관리 정착

사업예산 1,038.5백만원(신규 도랑 31개소, 사후관리 도랑 31개소)

*('11) 600백만원 → ('12) 650백만원 → ('13) 960백만원 → ('14) 1,089.5백만원

사업절차

- **신규사업** : 사업계획서 제출(시 · 군 → 시 · 도) → 도랑 사업의 필요성, 복원 가능성 및 추진 협의회 구성여부 등 검토 · 취합하여 제출(시 · 도 → 유역환경청) → 사업계획 타당성 및 예산편성 적정성 심사 · 평가하여 사업선정(유역환경청)
- **사후관리사업** : 최근 2년간 도랑 살리기 사업 참여 도랑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도랑에 대해 사업계획서 제출(시 · 군 → 시 · 도) → 사후관리 필요성 등을 검토 · 취합하여 제출(시 · 도 → 유역환경청) → 사업계획 타당성 및 예산편성 적정성 심사 · 평가하여 사업선정(유역환경청)

추진협의회 구성 및 활동

- 마을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 수렴, 세부계획 수립 등 주민 참여형 도랑 정화 및 수생태계 복원 활동 전개
- 추진협의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 특성을 반영한 복원 청사진 마련

정책 담당 **환경부 유역총량과 박상철 사무관, 허승혜 주무관**

"생활쓰레기, 농약 빈 병, 소각재 등으로 오염된 마을 도랑을 옛 추억이 살아 있는 가재 잡고 물장구 치던 동네의 습터와 놀이의 공간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하천 최상류인 마을 앞 도랑의 체계적인 관리로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은 물론 마을 주민과 함께 추진, 환경의식 제고 및 마을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명 (충청남도) 주민 참여형 마을 도랑 살리기

■ 정책 개요 예전의 마을 도랑은 빨래하고 아이들이 가재잡고 물장구치던 동네의 습터와 놀이의 장소로 기억됨

생활하수, 농촌 쓰레기, 가축분뇨 등으로 오염되어 예전의 깨끗한 도랑의 모습과 추억이 상실
—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참여를 기반으로 도랑 수생태복원 및 수질개선

■ 정책 내용 도랑 살리기 운동 전개
—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 살리기 운동 : 소유역단위별 총 60개소(18억원, 개소당 3천만원)
— 기 복원사업지 도랑(60개소) 사후관리 지원
— 도랑 실태조사 및 물길지도 작성
— 도랑하천 수질측정(모니터링)으로 효과 분석
— 도랑 유형 및 마을별 특성에 맞는 모델 보급
— 우수사례 발굴 시상 및 홍보활동 전개

주민참여 확산 및 지속가능 추진기반 마련

- 마을별 가칭 "윗물 두레" 구성 · 운영
- 충남 도랑 살리기 운동 전진대회 개최
- 주민 인식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 레스도랑-day(Let's 도랑 살리기) 운영
- 도랑을 주민 휴식공간인 레스도랑(Rest도랑)으로 명소화
- 도랑 생태복원지역 축제 · 환경행사 등 연계

■ 주요 성과 농촌 희망마을만들기 등 마을 발전 사업과 연계 추진
복원 후 지역 환경행사 등과 연계 추진
하천의 최상류인 도랑의 체계적인 관리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민·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으로 주민과의 소통 강화
마을 주민과 함께 추진, 환경의식 제고 및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

정책 담당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주무관 이돈우**

"얼마전에 도랑 살리기 운동을 추진한 마을 이장님으로부터 마을 도랑이 깨끗해지니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랑 살리기 운동은 물길 최상류인 마을 도랑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주민 스스로 참여 하는게 특징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오염도랑 복원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슬로우 시티 청산도의 새로운 유산 ‘구들장논’

전라남도 완도에서 뱃길로 50분 거리에 있는 청산도는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시티다. 영화 ‘서편제’와 드라마 ‘봄의 왈츠’가 촬영된 곳으로 푸른 바다와 푸른 산, 돌담길 등 섬 구석구석에 매력이 흘러넘친다. 이런 청산도에 또 하나 자랑할 만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청산도에 살았던 옛 선조의 지혜가 담겨있는 구들장논이 국가중요농업유산 1호와 국내 최초 세계 중요농업유산에 선정된 것이다. 구들장논은 무엇이고, 청산도의 유산인 구들장논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찾아가 보았다.



정책수혜지역
완도 청산면

- 구장리
-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청산남로 163
- 이장
-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
- 39,139㎡
- 완도군청 농축산산업과 백상기 주무관



수혜자
지역



정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연도
2013년



정책 지원금
15억원

청정자연과 고유의 섬 문화를 보유한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시티 청산도

청산도는 전라남도 완도군에 있는 섬으로, 땅끝 완도에서 제주도를 향해 내려가다 보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다. 언제부터인가 청산도는 한국 사람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한국에는 수없이 많은 섬이 있는데, 청산도는 과연 어떤 매력을 품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문득 궁금해 청산면장인 서길수 씨에게 이유를 물어보았다.

“청산도는 먼저 훼손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푸른 바다와 푸른

"구들장논이
농업유산에 지정이
되면서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부쩍
늘어났어요.
구들장논은 정말
청산도의 보물입니다."

산, 돌담길 등이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선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서편제'와 드라마 '봄의 왈츠'가 이런 훼손되지 않은 곳을
배경으로 촬영되었기에 더욱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고유의 섬 문화'를 두 번째 이유로 들었다.
"청산도에만 있는 고유의 섬 문화가 있습니다. 초분이라는 옛날 방식의
장례 풍습이 있고, 한국 유일의 구들장논도 자랑거리입니다."

천덕꾸러기 '구들장논' 청산도의 새로운 유산이 되다

앞서 청산면장이 언급한 '구들장논'이 바로 이번 사례의 주인공이다.
구들장논은 2013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로 지정이 되었고, 2014년도에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가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시켰다.
이쯤 되면 구들장논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해질 것이다. 구들장이란
온돌의 우리말로, 방바닥 밑으로 연기와 열기를 통과시켜, 상승하려는
열기로 바닥을 데우고 그 열기가 다시 실내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1
온돌의 특성을 청산도에 오래전에
정착한 선조가 농작물 재배를 위해
활용한 것이 구들장논이다.



역할을 한다. 이 온돌의 특성을 청산도에 오래전에 정착한 선조가
농작물 재배를 위해서 활용한 것이다.

섬의 특성상, 돌이 많고 흙과 물이 부족한데 자갈층에 통로수를 깔고
그 위에 구들장을 놓아 밭에 물이 오랫동안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선조들이 고안해 낸 과학적인 농경문화 유산인 것이다.

사실 농업유산으로 등재되기 전만 해도 청산도의 구들장논은 천덕
꾸러기 신세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오래된 계단식 논은 경제성이
없어 휴경이 확대되고 있었는데, 특히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산비탈의
논에는 갈대만 무성했다고 한다.

청산도의 보물 '구들장논'

구들장논이 2013년에 국가중요농업유산과 2014년 세계중요농업
유산에 선정됨으로써 400년이 흐른 지금에야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현재 국비 15억 원(3년간)이 투입되어 유산자원의 발굴과 복원 그리고
보전과 활용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구들장논이 청산도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면서 무엇보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데에 한 몫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산면 사무소에
따르면, 작년 청산도에 다녀간 관광객이 약 33만 9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약 4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증가에는 구들장논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청산면 주민들의 생각이다.

실제로 청산도 상서마을에서 특산물을 판매하는 박근호 운영위원장을 만나보았다. 그는 구들장논에서 벼와 콩 등을 재배하기도 하는 농업인이다. 그는 이번 구들장논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가 됨으로써 관광객이 늘어난 것을 몸소 느낀다고 했다.

“구들장논이 농업유산에 지정이 되면서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부쩍 늘어났어요. 청산도에 여행을 왔으니 구들장논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한 봉지씩 기념으로 사가려는 것 아니겠어요? 덕분에 김과 미역 등 청산도 본래의 특산물 판매도 예전보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구들장논은 정말 청산도의 보물입니다.”

물론, 이번 구들장논의 농업유산 지정으로 청산도의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청산면사무소의 농수산담당 김남욱 직원이 구들장논을 안내해주면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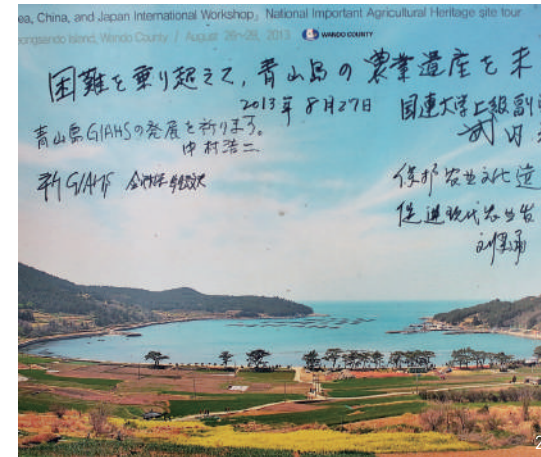
그는 슬로우시티로 이미 유명해진 청산도가 구들장논으로 인해 한 층 더 유명해질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앞으로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청산도를 찾아 주민들의 소득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청산면에서는 앞으로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구들장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장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구들장논을 상품화하여 청산도에서 생산한 지역농산물의 판매에 활용한다고 했다.

유채꽃으로 가득한 구들장논 기대하셔도 좋아요!

올 가을 청산도의 비탈진 구들장논 55필지의 39,139㎡에는 경관작물인 유채가 한가득 심어졌다. 농기계 진입이 어려워 갈대로 황폐화된 지 오래된 구들장논이라고 한다. 농사를 지어도, 경제성을 기대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란단. 청산면에서는 교육지책으로, 농업유산의

1
관광객 증가로 청산도 특산물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



2
구들장논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되면서 증가한 해외 관광객이
남긴 메시지

3
청산도는 슬로우시티로도
유명하다.

면적도 유지하고 경관을 아름답게 할 목적으로 유채를 심은 것이다. 어찌 되었건, 내년 4월이면 청산도의 비탈진 구들장논에서 첫 세대의 유채꽃이 꽃을 활짝 피울 것이다. 비록 구들장논의 본래 사용 목적으로 작물을 수확할 수는 없지만, 흐드러지게 피어난 유채꽃은 청산도를 아름답게 뒤덮을 것이고, 관광객들은 노란색의 향연에 취하고 구들장논을 자연스럽게 기억할 것이다.

내년 봄, 유채꽃으로 가득한 청산도의 구들장논이 무척 기대가 된다.

시행 후 변화



지역민들의 자긍심 고취
* 농사짓기 힘든 논 → 세계문화유산



귀향인구 증가



관광객 증가
* ('14) 33만명 → ('15) 35만명

정책 사업명

국가농업유산 지정 및 유산자원 활용사업 추진

정책 개요

오랜기간 동안의 농경행위로 형성된 전통적인 농업 형상, 시스템 및 기법 등이 결합된 유산자원을 보전관리

- 산업화 및 농촌의 과소화에 따라 유산자원이 훼손되고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여 농촌의 다원적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활용

※ 세계식량농업기구(FAO)도 소멸되어가는 농업유산자원의 보전하고 통합접근방식의 농촌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2년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를 도입

보전 가치가 있는 농업 유산을 발굴, 국가차원의 보전관리 추진

- 보존(규제)중심의 문화재와 차별화하여, 전통농법 · 문화, 특색있는 경관, 생물다양성 등을 포괄하는 유산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보전 · 관리 및 활용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까지 지역주민, 지자체, 관련분야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모델 개발

- 지역주민의 자율적 합의에 기초하여 관리협정을 체결하고 농업유산 및 주변지역의 보전 · 관리와 활성화방안 마련

정책 내용

'12년도 농업유산제도를 도입, '13년부터 국가농업유산을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예산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농업유산지정 및 예산지원의 법적근거 마련('15.8.4시행)

농업유산자원의 보전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하여 유산지역에 15억원을 지원

- 농업유산자원의 발굴, 복원 및 주변지역 정비
- 유산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자원의 지역브랜드화
- 유산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활용도 향상
- 유산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운영 활성화

보전관리사업을 통하여 발굴된 농업유산 중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등재 추진

-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역간 협력을 통하여 보전관리방안 협력
-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 검토 및 등재 과정 지원

주요 성과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및 예산지원으로 유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을 통하여 유산자원의 발굴 · 복원이 이루어지고 보전관리를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농업유산자원을 지역활성화의 자원으로 활용

- 농업유산을 지역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로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
- 농촌의 다원적자원 증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우리나라 농업유산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 우수한 국가농업유산을 발굴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유산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홍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현황 : 2015년 현재			
지정번호	명칭	지정범위	주요 특징
제1호	청산도 구들장논	청산도 전역(5.0ha)	· 전통온돌 방식인 구들장방식의 통수로가 논바닥 밑에 설치된 논
제2호	흑룡만리 제주 돌담 밭	제주도 전역(22,108km)	·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밭을 둘러싼 돌담
제3호	구례 산수유농업	구례군 산동면 일원(228ha)	· 전국 생산의63%, 천연된 산수유나무 보유, 산수유 군락 및 낮은 돌담 등 경관우수, 지역고유의 재배기술 보유
제4호	담양 대나무밭	담양읍 삼다리, 향교리 일원(56.2ha)	· 전국 죽림면적의 26%, 경관적가치우수, 생물다양성 및 죽순생산, 농기구이용 및 전통 죽제품 생산
제5호	금산 인삼농업	금산군 일원 (297ha)	· 우리나라 인삼재배 · 가공 및 유통의 대표지역으로 인삼산업 발달
제6호	하동 전통차농업	화개면 일대 (598ha)	· 지리산 산간지역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차밭을 조성, 경관과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전통차 가공기술 유지보전

정책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민동명, 주무관 유영숙**

“오랜기간 농업활동을 통하여 형성된 농촌의 유산자원이 개발과 도시화로 인한 농촌의 과소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방치되고 있어 보전 및 활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2년 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후 유산자원의 보전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치되고 훼손되어 가던 지역 유산자원이 국가농업 유산으로 지정되어 복원 관리되고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농업유산자원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증가하였고, 이는 귀향인구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농업유산자원을 관광자원, 브랜드 활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VII

안전

15

농업정책보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준다’

—농업정책보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에서 배와 포도 농사를 짓는 김이수 씨를 만나보았다. 그는 얼마 전 농기계종합보험의 수혜를 받았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사용 시,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및 농업인 복지증대를 위한 보험이다. 그 외에도 농업정책보험에는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해 주는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농업인·농작업근로자의 농작업 중 재해를 보장해 주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이 있다. 농촌의 재산과 생명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는 농업정책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것이다.



정책수혜자
김이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개묵이길 42-12

1966년

1984년부터 농업종사

논 약 1만5천평,
과수원 약 7천평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최미현
031-8008-5453
hyun4638@gg.go.kr



수혜자
농업·농업법인



정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보험사업자
농협손해보험/농협생명보험
/KB손해보험



국고지원 / 지자체지원 / 자부담 비율
국고 50% / 지자체 25%
/ 자부담 25% 수준

부담을 확 줄였어요!

농업정책보험에는 크게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있다.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이 있으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이 있다. 이 중 김이수 씨가 수혜를 받은 농기계종합보험은 종합보험으로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양기, 배일러 등 동력이동농기계 12종 중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입 대상이다. 이는 일반 차량의 자동차 보험과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말 그대로 농기계가 도난, 파손되거나 농기계 사용 시 사고로 인한 인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보험금으로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장책이다.



1
김이수 씨는 트랙터를 교체해야 했다. 다행히도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손해 금액의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결국,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여 농업인의 복지증대를 위한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료의 50%(보험가입금액 5천만 원까지)를 국고지원하고 있다. 국고지원 외에도 2015년 기준 일부 지자체(경기·충북 전지역, 전북 진안, 전남 나주·화순, 경북 문경·상주, 경남 합천 등)에서 보험료의 25% 수준을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의 자기부담금은 25% 수준이다. 그 결과로 농가의 보험가입이 늘고, 2014년 전체 가입건수가 43천 건이었던 것이, 2015.10월 기준 무려 49천 건을 기록하였다. 앞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추세이다.

97,000원 내고 2,500만 원 보험금 수령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서 태어나 대학 졸업 직후인 1984년부터 농사를 지어온 김이수 씨(50)는 집 주위의 논과 밭에서 벼농사를 비롯해 포도와 배 등 과일 농사를 짓고 있다.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논이 약 만 오천 평에 밭이 3천 평이고, 과수원이 약 7천 평으로 넓어,

“직접 사고를 당하고, 보험금을 받고 나니, 보험에 들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네 주민들을 만날 때 마다 보험 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만 해도 6대가 넘는다. 농사일로 잔뼈가 굵은 김 씨지만, 올해는 농사 도중 그만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트랙터로 모판을 이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운전 미숙으로 그만 트랙터가 뒤집어지면서 로우터가 손상이 되었다. 이 사고로, 김이수 씨는 트랙터를 교체해야 했다. 다행히도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손해 금액의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었다. “2,5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트랙터를 새 것으로 교체를 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보험 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김이수 씨가 트랙터 한 대에 대해서 지불한 보험료는 년 29만원. 그 중 25%만 자부담(국고지원 50%, 지자체지원 25%)이기 때문에 실제 내야 하는 돈은 72,000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자기신체사고 및 대인 배상II을 자부담으로 추가 가입해서, 실제 들어간 돈은 97,000원으로 자동차 종합보험과 비교하면 아주 저렴하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보험사에서 확인을 완료했다는 증표로 분홍색의 리본이 배나무에 묶여있다.



농업정책보험 전도사로 나선 김이수 씨

보험은 실제로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그 필요성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번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가입과 미가입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이다.

김이수 씨는 몇 년 전 바로 옆 마을에서 한 농업인이 농사일을 하던 중 목숨을 잃은 것을 보고는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그 농업인은 보험 가입에 되어 있지 않아 보상을 거의 받을 수 없었던 것. 그 때 보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한다.

“직접 사고를 당하고, 보험금을 받고 나니, 보험에 들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네 주민들을 만날 때 마다 보험 들라고 말을 합니다. 허허허.” 보험 전도사가 된 김이수 씨가 멋쩍은 웃음을



1 김이수 씨는 집 주위의 논과 밭에서 벼농사를 비롯하여 포도와 배 등 과일 농사를 짓고 있다.

지으며 말했다. 유사 시, 이렇게 재산을 지켜주는 농기계종합보험이지만, 실제로 이 보험은 자동차 보험만큼 대다수의 농민들이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금전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일 텐데, 다행인 것은 올해 농민의 보험금 자부담금이 50%에서 25%로 축소되어 부담이 한결 줄었다고 한다.

김이수 씨는 농기계종합보험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도 가입을 했다고 한다. 바로 그가 재배하는 포도와 배가 대상물이다.

실제 취재를 위해 그의 과수원을 찾았을 때, 일부 배나무에 보험사에서 확인을 완료했다는 증표로 분홍색의 리본이 묶여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리본 위에는 조사 날짜와 착과 수, 그리고 조사자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태풍이나 병충해 등으로 과일 농사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는 농업재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농업재해보험 또한 국고에서 50%를, 지자체에서 평균 30.6%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10~25% 수준이라고 한다.



너무나 매력 많은 당신

‘농업정책보험’

올해의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농작물들이 우리네 식탁에 오르지도 못하고 고사를 해버렸다고 농부들이 한탄하고 있다. 태풍도 끊임없이 상륙하면서 우리의 농촌과 어촌의 수확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해 우리를 괴롭힐 게 분명해 보인다. 또한,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로 농약 및 농기계 사고의 위험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자연재해와 농작업 중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농업정책보험 가입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각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가 부담율을 낮춰주고 보장 내역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 또한 꾸준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시행 후 변화



농업인의
복지 증대



전국 농기계보험 가입건수 및 지급액 증가

* 가입건수 : ('00) 11천건명 → ('14) 43천건

* 지급액 : ('01) 721건, 13억 → ('14) 5,000건, 165억



금전적 부담 감소

* 지자체 보조 추가로 자부담 감소 : 50% → 25%

정책 사업명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정책 개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농가의 보험료 지원

- 국고지원 50%, 지자체지원 15~25% 수준, 자부담 15~25% 수준

■ 정책 내용

농업인안전보험

- 지원조건 : 보험료의 50% 국고지원
- 가입대상 : 만 15~84세로 영농 · 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해당 농림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보험(보장)기간 : 1년
-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 KB손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 지원조건 : 보험료(가입금액 5천만원 한도)의 50% 국고지원
- 가입대상 : 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 보험(보장)기간 : 1년
-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 지원조건 : 보험료의 50% 국고지원
- 가입대상

보험계약자		농장주(고용인)	
보험대상자	피고용인	보험수익자	피고용인
가입연령	만 20~84세	보험기간	1~89일

-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
- 농장주가 고용한 단기 피고용인의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가경영 및 인력수급 안정화 기여

1996년부터 2014년까지 3,459억원 국고지원으로 5,06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농업인 생활안정에 기여

정책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행정사무관 김전호, 주무관 강은영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해 보험혜택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토록 하여 농업인 생활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명

농업재해보험

■ 정책 개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 이상기후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생계형 사후복구 지원은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지 못함
-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농업재해보험제도 확충 및 농업인 참여 확대 필요

■ 정책 내용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보험료 지원

- 국고 50%, 지자체 25~24%(평균 30.6%), 농가 보험료 부담(10~25%)

■ 주요 성과

대상품목과 보상이 되는 재해 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농업경영위험관리수단으로 자리 매김

- 품목 확대 · 보장비율 확대 · 병해충 보상 추가 등 상품개선 강화
- 정책보험 전담기관(농금원) 설립 · 운영으로 공적기능을 강화('15)
- ICT 활용 평가기법('14) 및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도입('15), 재해 지원 절차 간소화, 현지조사시간 단축 등으로 신속성 · 신뢰성 제고

보험 가입면적 · 가입율과 보장금액이 증가, 상품화를 확대

- 가입면적은 180천ha('12)에서 174천ha('15.6월까지)로 연평균 17.1% 증가
- 보험 가입률 '12년 대비 6.8%p 상승
- 보장금액은 농가평균 3,387만원('12)에서 3,941만원('15.6)으로 16.3% 증가
- 보험 상품화율은 42.1%('12 : 51개)에서 51.2%('15 : 62개)로 확대

재해피해 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

- 보험은 일방적 정부지원 방식에서 탈피, 농가 스스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부상
- '14년 보험가입금액(보장금액)은 7조4188억원이며 순보험료 3,245억원(농가 평균부담율 21.5%, 698) 대비 23배(농가 실부담 대비 106배)의 위험에 대한 보장이 가능

정책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행정사무관 배우용, 주무관 조수영

“농업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농업인이 그 위험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영농재기를 돕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재해 피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직접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설 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설치('04.12.8)

목 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종합적 비전 제시와 관련부처 추진 정책의 총괄조정

기 능 농어업인 복지증진, 교육여건개선 및 지역개발 정책 총괄 · 조정

- 각 부처에 분산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시책을 종합한 5개년 기본계획 심의 및 추진실적 점검 · 평가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 복지 · 교육 ·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수립

구 성 장관급 위원회 및 차관급 실무위원회 설치

- 정부위원(15) : 기재부 등 15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 * 기재부 · 교육부 · 미래부 · 행자부 · 문화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고용부 · 여가부 · 국토부 · 해수부 · 국민안전처, 국조실장(실무위 : 통계청,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 민간위원(9) : 농어업인 단체, 지역개발, 교육 · 복지, 분야 전문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 · 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 ·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⑥항 생략
-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⑧ 생략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

현 황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낙후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04.3월)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구성 · 운영('04.12월~)을 통해 범정부 삶의 질 향상 대책 추진

- 제1차 기본계획('05~'09) : 4대 부문, 133개 과제에 22.8조원 투융자
- 제2차 기본계획('10~'14) : 7대 부문, 133개 과제에 34.5조원 투융자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 수립 · 추진 중
- * 18개 부처 · 청 합동, 7대 분야 46.5조원 규모(일자리 · 안전 분야 신설)

제3차 기본계획 기간 중 투융자 계획

계획기간 중 총 투융자규모는 46조 5천억원 수준으로 2차 계획기간 실적(34조 5천억원) 대비 35% 증가

- 국비 32조 1천억원(총 투융자규모의 69.1%), 지방비 12조원(25.7%), 기타 2조 4천억원(5.2%)으로 구성
- 연평균 투자규모는 9조 3천억원으로 '14년 대비 약 1.3배

구 분		2014	제3차 삶의질 향상 5개년 투융자(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합 계		73,448	86,335	89,562	93,782	96,579	98,668	464,926
재원별	국비	49,332	59,258	61,683	64,621	66,734	68,695	320,991
	지방비	22,519	22,077	23,018	24,267	25,070	25,169	119,601
	기 타	1,597	5,000	4,861	4,894	4,775	4,804	24,334
분야별	보건·복지	9,921	12,802	13,725	14,551	15,373	16,059	72,511
	교육	2,450	1,159	983	801	608	608	4,158
	정주생활기반	27,047	27,451	27,414	28,297	28,487	28,017	139,666
	일자리·경제활동	7,461	7,452	7,942	8,199	8,138	8,128	39,859
	문화·여가	1,529	3,257	3,437	3,675	3,827	3,607	17,803
	환경·경관	18,181	12,862	12,905	12,999	12,839	12,864	64,470
	안전	6,859	21,352	23,157	25,259	27,308	29,384	126,460

* 연도별 투자규모는 각 부처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연도 예산 편성 시 조정될 수 있음

2015~2019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

■ 비 전 ‘활력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
 — 보건·복지, 교육 등 7대 분야에 5년간(’15~’19) 46조 5천억 원 투입자, 18개 부처·청 합동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행복한 농어촌

따뜻한 정책을 말하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처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기획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향상연구센터
취재·촬영	조선일보 특별취재팀
편집기획	벤티카 주식회사
디자인·제작	02-2281-7701 www.vetica.co.kr

※ 이 책에 수록한 글과 사진의 무단 게재를 금합니다.